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06. **5** Vol. 173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부산시립미술관 조일상 관장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_ 숲속 발레 '춤추는 갈매기 반디'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역사로 보는 국악이야기-가야금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_ 봄날이 왔다



부산문화회관 기획 '시립합창단의 7080콘서트 그 두번째 이야기...'

부산·경남

대표채널

PSB 부산·경남 광역방송기념

The Classic 共感

쇼스타코비치 '축전서곡', 최영섭 '그리운 금강산'
보로딘 '폴로베쯔인의 춤곡', 차이코프스키 '1812년 서곡' 외



박정원(소프라노)



김남순(가야금)
부산 가야금 연주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합동연주



오충근



장윤성

2006. 5. 10 (수) PM 7:30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

2006. 5. 17 (수) PM 7:30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PSB 주관 벨간또 연구회

후원 SK 건설 World Best stx Life is wonderful KT NSR 눈사랑안경 (주)대원플러스건설

입장권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공연문의·예매

1577-7600

www.psb.co.kr

www.interpark.com



카르멘	돈호세	에스카미요	미카엘라
			
강희영	강학운	김종화	서경숙
			
김정화	허동권	조현수	전이순

5월27일(토)
오후 5:00

5월27일(토)
오후 8:00

관현악 반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0주년 · 부산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쉬운 오페라! 열린오페라! 유쾌한오페라!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카르멘 갈라

2006년 5월 27일 (토) 오후 5:00 / 오후 8:00 (전2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 주 최 |  그랜드오페라단  부산일보사  케이블 TV방송
- | 후 원 | 부산CBS  부산여성신문
- | 협 찬 |  삼성생명  대한제강  부산은행  비바체클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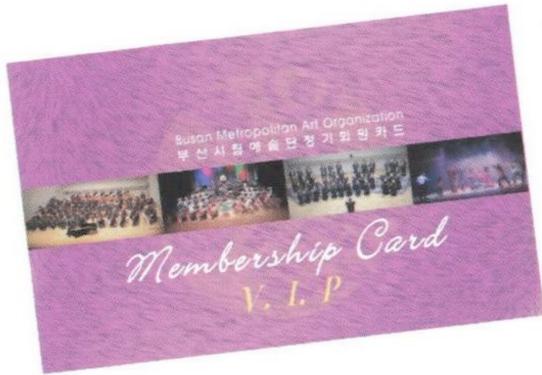
| 공연안내 및 예매 | 051) 809-8445 www.grandopera.or.kr



인터넷 예매 |  티켓365 (1588-2528 www.ticket365.co.kr)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티켓링크 (1588-7890 www.ticketlink.co.kr)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 영광도서(816-9500) · 동보서적(803-8000) · 면학도서(623-9404) · 남포문고(245-8911) · 영풍문고 해운대점(740-4300) · 비바체 클래식(743-0003)
 VIP석 100,000 | R석 70,000 | S석 50,000 | A석 30,000 | B석 20,000 | 청소년석 10,000 | 패밀리 R석(4인) 190,000 | 패밀리 S석(4인) 140,000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버 스 : 25, 51, 51-1, 68, 93,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운행

출 발 지 : 청심꽃조경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 지점)

출발시간 : 월~금요일 오후 7시(무료)

- 06 부산문화회관 5월 공연 일정
- 08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5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행복지수를 높여 봅시다 · 류지원
- 12 반갑습니다 | 부산시립미술관 조일상 신임관장
- 14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 숲속 발레 '춤추는 갈매기 반디' · 김옥련
- 18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역사로 보는 국악이야기-가야금 · 홍희철
- 20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새와 의자-하의수의 그림 <일상적 관계> · 김형술
- 22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 봄날이 왔다 · 김희진
- 24 연극속으로 | 관객모독 · 변미선
- 26 그곳에 가면 | 세계 최초의 건축 도자 미술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 28 우리는 문화 가족 | 어린이정가합창단 '한국소년소녀정가단'
- 30 캠페인 1인 1기를 배웁시다 | 단소불어보기 5 · 채수만
- 32 이 사람 | 제 24회 부산연극제 연출상, 희곡상 수상한 김지용
- 33 공연 화제 | The Classic-共感, 2006 부산국제연극제
- 36 부산시립예술단 5월 공연관람 가이드
- 42 5월 프로그램 가이드
- 59 쉽게 듣는 클래식 | 고음악연주(Authentic Music, 古音樂演奏) · 곽근수
- 60 새로 나온 음반
- 61 새로 나온 책
-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 한낮에 즐기는 부산문화회관 브런치 공연
- 63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4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안내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번지)
TEL. 625-8130, FAX. 607-620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6년 4월 25일

· 인쇄처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601-836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56-11번지)
TEL. 468-2468, 2757, FAX. 468-2515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5

월 공연일정

전시실

추사 서예가 협회 전국공모대전-대전시실

5월 2일(화)~5월 4일(목)

문의 김중영(752-8587, 011-772-8587)

제 10회 부산회화제-대·중전시실

5월 6일(토)~5월 14일(일)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부산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동문·교수 초대전 -대·중전시실

5월 15일(월)~5월 21일(일)

(전시는 15일 오후 6:00 개막)

문의 이양우(010-2687-1230)

제 26회 전국서도민전 작품전시회-대전시실

5월 27일(토)~5월 31일(수)

문의 조길상(441-7081, 011-864-6288)

제 26회 전국서도민전 임원 및 초대작가전-중전시실

5월 27일(토)~5월 31일(수)

문의 조길상(441-7081, 011-864-6288)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안내 : 9쪽)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월 5일부터 15일까지 부산국제연극제 기간중 5월 토요일상설무대는 쉽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1	mon	
2	tue	2006 숲속발레 창작무용극 '꿈속의 꿈' 11:00, 13:00, 19:30 1만5천원·7천원/김옥련무용원(627-4113, 016-579-9486)
3	wed	2006 숲속발레 창작무용극 '꿈속의 꿈' 11:00, 13:00, 19:30 1만5천원·7천원/김옥련무용원(627-4113, 016-579-9486)
4	thu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주피터 그리고 죽은자의 노래'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5	fri	
6	sat	2006 부산국제연극제-한국 '사랑하면 춤을 춰라' 19:00 1만5천원·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7	sun	2006 부산국제연극제-한국 '사랑하면 춤을 춰라' 15:00 1만5천원·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8	mon	
9	tue	부산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오페라 베버의 '마탄의 사수' 19:30 5만원·3만원·2만원/부산대학교(510-1747)
10	wed	부산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오페라 베버의 '마탄의 사수' 16:00, 19:30 5만원·3만원·2만원/부산대학교(510-1747)
11	thu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0회 정기연주회 '오페라 아리아의 세계로...'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12	fri	
13	sat	
14	sun	2006 부산국제연극제-폐막작 한국 '점프' 15:00 2만5천원·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15	mon	2006 부산국제연극제-폐막작 한국 '점프' 19:30 2만5천원·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16	tue	기드온 콰이어 제 10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연명희(011-867-6529)
17	wed	PSB 창사 11주년·광역방송기념 The Classic-共感 19:30 7만원·5만원·3만원/PSB(1577-7600)
18	thu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3회 정기연주회 'Lively&Lovely May'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9)
19	fri	
20	sat	
21	sun	
22	mon	
23	tue	부산시립무용단 제 54회 정기공연 '물. 비늘'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24	wed	부산시립무용단 제 54회 정기공연 '물. 비늘'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25	thu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 '시립합창단의 7080콘서트 그 두 번째 이야기...' 11:00, 19:30 2만원·1만원(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26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Ⅲ '모차르트 음악의 밤'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27	sat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0주년 기념-금난새와 함께 하는 오페라 여행 '카르멘 갈라' 17:00, 20:00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2만원·1만원/그랜드오페라단(809-8445)
28	sun	
29	mon	부산 CBS 여성성가단 제 10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황숙희(017-568-4407)
30	tue	김진홍의 춤... 그 먼길 19:30 초대/김진홍(646-0845, 011-9966-0845)
31	wed	

중극장

MEDIUM THEATER

- 1 **mon** 제 21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구미정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이소영(011-9336-1679)
- 2 **tue** 제 21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현대 작곡가의 밤' 19:30
균일 1만원/이소영(011-9336-1679)
- 3 **wed** 제 21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Solo & Duo!' 19:30
균일 1만원/이소영(011-9336-1679)
- 4 **thu**
- 5 **fri** 2006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독일 '발라간' 19:30
2만5천원 · 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 6 **sat** 2006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독일 '발라간' 19:00
2만5천원 · 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 7 **sun** 2006 부산국제연극제 특별초청공연-중국 '온능 남예방 춤' 15:00,
18:00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 8 **mon** 2006 부산국제연극제 특별초청공연-중국 '온능 남예방 춤'
19:30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 9 **tue**
- 10 **wed**
- 11 **thu**
- 12 **fri** 2006 부산국제연극제-브라질 '자연, 일곱 개의 그릇' 19:30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 13 **sat** 2006 부산국제연극제-브라질 '자연, 일곱 개의 그릇' 19:00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 14 **sun** 2006 부산국제연극제-브라질 '자연, 일곱 개의 그릇' 15:00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 15 **mon**
- 16 **tue** 안일웅 작품발표회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시리즈 I' 19:30
균일 1만원/안일웅(753-2082)
- 17 **wed**
- 18 **thu** 故 김석형 3주기 추모음악회 19:30
1만원 · 3천원/부산콘서트라이어(011-825-6092, 010-7508-5050)
- 19 **fri** 故 임종길 교수 추모음악회 19:30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20 **sat** 이동섭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문화(633-8990, 635-9081)
- 21 **sun** 벨리씨미와 함께하는 사랑의 가족음악회 19:30
1만원 · 5천원/이지영(010-7314-0682)
- 22 **mon** 최혜련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최혜련(556-7109, 010-3752-7106)
- 23 **tue** 성가와 가곡의 밤 19:30
균일 1만원/김성보(011-559-4919)
- 24 **wed** 작곡모임 '잉태' 가정의 달 기념 작곡 발표회 '5월의 향기'
19:30 균일 1만원/최석태(622-3147, 019-623-1547)
- 25 **thu** 이태리 음악연구회 제 23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오동주(017-556-5058)
- 26 **fri**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로르 파브르 칸 초청 피아노 콘서트' 19:30
균일 1만원/부산문화(633-8990), 부산프랑스 문화원(465-0306)
- 27 **sat** Sound for Double Reed(Oboe&Bassoon Duo Recital)
19:00 균일 1만원/장정호(011-387-4390)
- 28 **sun** 바라밀 합창단 창단연주회 19:00
무료/정수연(863-8339, 011-830-3239)
- 29 **mon**
- 30 **tue** 아지무스 오페라단 제 3회 '우리 시, 우리 노래' 19:30
1만원 · 7천원/손욱(011-9520-4649)
- 31 **wed**

소극장

SMALL THEATER

- 1 **mon**
- 2 **tue** 곽윤희 피아노 클래스 연주회 19:30
초대/곽윤희(010-5779-1568)
- 3 **wed** 부산컴퓨터 과학고등학교 제 3회 신입생 환영음악회 19:00
무료/최규일(010-7305-0412)
- 4 **thu**
- 5 **fri**
- 6 **sat**
- 7 **sun** 2006 부산국제연극제-한국 마임극단 세진 '지니 스토리'
15:00, 18:00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
- 8 **mon** 2006 부산국제연극제-한국 마임극단 세진 '지니 스토리' 19:30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 9 **tue** 2006 부산국제연극제-한국 마임극단 세진 '지니 스토리' 19:30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 10 **wed**
- 11 **thu** 2006 부산국제연극제-한국 하현관 마임퍼포먼스 '잊혀지는 사람들 II' 19:30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 12 **fri** 2006 부산국제연극제-한국 하현관 마임퍼포먼스 '잊혀지는 사람들 II' 19:30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 13 **sat**
- 14 **sun**
- 15 **mon**
- 16 **tue**
- 17 **wed**
- 18 **thu** 정순화 피아노 클래스연주회 19:00
무료/정순화(807-4911, 016-847-4914)
- 19 **fri**
- 20 **sat** 토요일상설무대-방수미 수궁가 완창무대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 21 **sun**
- 22 **mon**
- 23 **tue**
- 24 **wed**
- 25 **thu**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재학생 발표회 19:00
초대/동아대학교(200-7819, 010-3153-3101)
- 26 **fri** 인형극단 까치 팡팡동화나라 '해님 달님' 10:20, 11:30
균일 1만원/극단 까치(633-2114)
- 27 **sat** 토요일상설무대-이태리가곡연구회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 28 **sun** 향기오카리나 앙상블-가족과 함께 하는 오카리나 여행 18:00
초대/이정미(515-0528, 010-4731-5415)
- 29 **mon**
- 30 **tue** 예사랑 창단연주회 19:30
초대/김미경(612-2155, 017-553-9809)
- 31 **wed**

부산시내 기타공연 5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문의 : 시민회관(630-5200)

1	mon	
2	tue	
3	wed	
4	thu	팬 양의 버블 쇼 14:00, 16:30, 19:00 -대극장 3만5천원 · 2만5천원 · 1만5천원/도브엔터테인먼트(973-9353)
5	fri	팬 양의 버블 쇼 11:00, 14:00, 16:30, 19:00 -대극장 3만5천원 · 2만5천원 · 1만5천원/도브엔터테인먼트(973-9353)
6	sat	팬 양의 버블 쇼 14:00, 16:30, 19:00 -대극장 노래하는 줄인형 14:00, 16:00 -소극장 부산국제연극제(627-0443)
7	sun	각설이 '품바' 14:00, 18:0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부산국제연극제 '노래하는 줄인형' 13:00, 15:00 -소극장
8	mon	월요영화 '브이 포 벤데타'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부산국제연극제 '노래하는 줄인형' 16:00, 19:30 -소극장
9	tue	제 34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09:00 -대극장 신라대학교(999-5301)
10	wed	제 34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09:00 -대극장 부산국제연극제 '휘투타' 19:30 -소극장
11	thu	부산국제연극제 '휘투타' 19:30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12	fri	부산국제연극제 '휘투타' 19:30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13	sat	홍경민 부산콘서트 16:00, 19:30 -대극장 라이프플러스(02-522-9933) 제 2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개막식 14:30 -소극장 부산예총(631-1377)
14	sun	월요영화 '방과후 옥상' 14:00, 17:0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15	mon	월요영화 '크래쉬'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16	tue	한낮의 '休' 콘서트 11:00 -대극장 균일 1만원/시민회관(630-5200) 부산색소폰앙상블 창단연주회 19:00 -소극장 하중수(011-871-6289)
17	wed	부산청소년연극제-부산영상고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16:00, 19:00 -소극장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18	thu	부산청소년연극제-부산전자공고 '바리데기' 16:00, 19:00 -소극장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19	fri	부산 청소년 관악페스티벌 19:30 -대극장 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청소년연극제-부흥고 '죽은시인의 사회' 16:00, 19:00 -소극장
20	sat	
21	sun	청소년 창작무용 발표회 16:00 -대극장 부산무용협회(632-5116)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09:00 -소극장 부산국악협회(644-5211)
22	mon	월요영화 '달콤 살벌한 연인'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부산청소년연극제-한국과학영재학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6:00, 19:00 -소극장
23	tue	2006 EF공연 19:00 -대극장 무료/부산학원복음화협의회(621-3828) 부산청소년연극제-대진정보통신고 '탑과 그림자' 16:00, 19:00 -소극장
24	wed	고복수, 황금심 추모콘서트 19:00 -대극장 균일 3만원/오프넷엔터테인먼트(751-1600)
25	thu	
26	fri	부산청소년연극제-남산고 '서툰사람들' 16:00, 19:00 -소극장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27	sat	연극 '올드보이' 16:00, 20:00 -대극장 아마데우스(1588-9088) 부산청소년연극제-금정청소년수련관 '세가지 시선' 16:00, 19:00 -소극장
28	sun	연극 '올드보이' 15:00, 19:00 -대극장 아마데우스(1588-9088) 청소년예술제 시낭송대회 10:00 -소극장 무료/부산문인협회(632-5888)
29	mon	월요영화 '청춘만화'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30	tue	
31	wed	

금정문화회관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1	mon	
2	tue	
3	wed	수요음악회 '소프라노 여수희 창작동요 독창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4	thu	박환영 대금연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부산대학교(510-1739)
5	fri	뮤지컬 '스폰지밥과 니안다의 모험' 12:00, 14:00, 16:00 -대공연장 1만원 · 8천원/극단 대추(802-0530)
6	sat	뮤지컬 '스폰지밥과 니안다의 모험' 12:00, 14:00, 16:00 -대공연장 아지무소오페라단 아카데미 콘서트 15:00, 19:00 -소공연장 손욱(011-9520-4649)
7	sun	
8	mon	
9	tue	고3들의 처절한 몸부림 19:00 -소공연장 초대/박정미(011-9556-8845)
10	wed	수요음악회 '소프라노 송윤경 독창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11	thu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2006 정기연주회 '교과서 음악회' 19:30 -대공연장 3만원 · 1만원/안상철(016-9302-5271)
12	fri	2006 부산 동인 춤마당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조혜진(010-9354-7397)
13	sat	2006 부산 동인 춤마당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조혜진(010-9354-7397)
14	sun	부산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공연 '새벽별'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부산대학교(510-1740)
15	mon	부산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공연 '새벽별'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부산대학교(510-1740)
16	tue	부산예술고등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동문음악회 19:30 -대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17	wed	수요음악회 '김수진 작곡발표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18	thu	이성은 피아노 귀국 독주회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이성은(010-7580-0612)
19	fri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연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임충진(019-456-9680)
20	sat	
21	sun	
22	mon	2006 쇼 오페라 19:30 -대공연장 균일 2만원/손경균(011-841-4636)
23	tue	부산신포니에타 청소년협주곡의 밤 19:30 -대공연장 김영희(510-2911) An-ti Stimmung 작곡발표회 19:30 -소공연장 진소영(010-3024-7877)
24	wed	부산예술중학교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부산예술중(512-8092) 수요음악회 '김현숙, 김미숙 듀오콘서트'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25	thu	울산대학교 스트링오케스트라 연주회 19:30 -대공연장 울산대(052-259-1207) 부산국악작곡가회 '부산의 시와 음악' 19:30 -소공연장 부산대(510-1739)
26	fri	
27	sat	성가합창제 19:00 -대공연장 초대/김경식(017-594-7339)
28	sun	
29	mon	부산예술고등학교 제 19회 국악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514-1232)
30	tue	창작 실내악과 가곡의 밤 19:30 -소공연장 초대/김성광(010-9865-3391)
31	wed	2006 윤여숙의 전통춤 19:30 -대공연장 윤여숙(011-865-6873) 수요음악회 '박경희, 김은진 듀오콘서트'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예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5/15(수) 19:30	The Classic '공감' 부산시향, 창원시향 합동연주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10%	PSB (1577-7600)
	5/27(토) 17:00, 20:00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카르멘' 갈라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10%	그랜드오페라단 (809-8445)
시민회관 대극장	5/13(토) 16:00, 19:30	홍경민 부산콘서트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10%	라이브플러스 (02-522-9933)
	5/27(토) 16:00, 20:00 5/28(일) 15:00, 19:00	연극 '올드보이'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10%	아마데우스 (1588-9088)
	6/3(토) 16:00, 19:00 6/4(일) 15:00, 18:00	뮤지컬 '알타보이즈'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부산전시 컨벤션센터	5/13(토) 19:30	YB-윤도현밴드 2006 전국투어	S석 66,000원 · A석 55,000원	S석 60,000원 A석 50,000원	인터스태이지 (1588-8477)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5/8(월) 14:00, 20:00	장윤정 어버이날孝 디너쇼	VIP 150,000원 · R석 120,000원	10%	엠스톤엔터테인먼트 (627-3232)
동아대학교 석당홀	5/27(토) 15:00, 17:30, 20:00 5/28(일) 14:00, 16:30, 19:00	안녕하십니까! 수녀님?	R석 45,000원 · S석 30,000원	10%	아마데우스 (1588-9088)
가마골소극장	4/18(화)-5/21(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 일 공연없음)	서툰사람들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5/26(금)-6/25(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 일 공연없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정부가 있다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문우당서점(245-3843), 국도레코드(로얄호텔 옆 247-4240)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유니트매장(까르푸 내 462-0833)
- 금정구/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부산대 앞 518-0686), 골든악기사(부산예고 앞 512-4295)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해운대구/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선프라자 1층 743-0003)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감동을 · 함께 · 만드는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야마하 공식 A/S점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행복지수를 높여 봅시다

류지원 · 부산YMCA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한국합창조직위원회 예술위원

‘날아라 새들이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이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위의 시처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5월이 왔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나뭇잎들이 연둣빛에서 진청색으로 옷을 분주히 바꿔 입고 주변이 온통 싱그러움으로 넘쳐 나는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아마 우리 곁에 꿈나무들이 ‘어린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의 소중한 꿈나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의 원천인 동심을 잃고 사는 것 같아 안타깝다. 동시가 빚어내는 넓은 세상과 동시에 아름다운 선율을 입힌 동요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 하다.

1990년도 중반 즈음에 ‘동요사랑회’가 만들어지면서 창작 동요의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그 당시 부산이 전국의 동요 중심 도시가 되어 동요를 보급하고 창작동요를 만드는 작곡가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다. 간간히 있어왔던 창작동요 발표들이 ‘동요사랑회’를 통해 하나로 묶어져 결실을 맺게 된 때문이었다. 주로 방송매체에서만 이루어졌던 창작동요 발표가 공연장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지면서 어린이들과 대중들을 찾아갔으며 많은 작곡가들이 창작 동요를 만들었다. 물론 부산에서 동심을 노래하던 시인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동요로 활기가 넘치는 부산이 되었다.

동요사랑회의 시작은 1994년 모 기획사의 창작동요 음악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음악회가 그동안 잊혀졌던 동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동요계의 많은 관계자에게도 열정을 다시 불붙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동요의 전성시대가 온 것이었다. 이 같은 큰 변화는 우리의 아이들이 동요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어릴 때부터 꼭 경험해야 할 동심의 세계를 동요 부르기를 통해 만들어 주고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요사랑회는 창작동요 작곡에만 그치지 않고 동요를 보급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만들어진 창작동요 음반과 책자를 학교와 관공서 및 도서관에 비치하였고 동요 부르기 대회를 참가비 없이 무료로 개최하여 당시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경연대회가 되기도 했다.

어느 해엔 초읍동의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동요 부르기 대회를 치르는데 아침부터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들어 학생교육문화회관 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이었다. 수 백 명이 되는 참가자들 때문에 대회를 시간대 별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달라고 사전에 요청을 했음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무대에서 리허설도 해 볼 겸 일찍 오는 바람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따랐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들을 안내하던 회



원과 손발이 모자라서 애태우던 임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이듬 해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동요 부르기 대회 때문에 다른 공연과 회관 운영이 마비가 될 우려가 있으니 대관이 어렵다고 통보를 해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래도 다음 해에 동요를 사랑하던 많은 아이들은 계속 동요를 부르러 왔다.

그 때 동요를 부르며 꿈과 희망을 키웠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많이 자라 청년들이 다 되었다. 동요를 부르면서 동요 가사처럼 닮아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며 동요 가락의 아름다움처럼 밝게 살아가고 있으리라 여겨진다.

요즈음 우리는 가정이나 놀이터에서 동요를 듣기가 참 힘든 것 같다. 5월만이라도 집에서나 학교에서 그리고 마을이나 아파트에서 늘 동요가 울려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 본다.

부산에서 동요 작곡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 작곡가들과 작사로 헌신하여 주신 작사자들, 또 합창단, 노래 단체에서 쉬지 않고 동요를 보급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어린이와 함께 모두 5월의 주인공이다.

어린이들이 게임 방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동요를 듣고 즐겨 따라 부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 달엔 온 가족이 동요 부르기 지수를 높여보자.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도 틀림없이 높아질 것이다. 먼 나라나 이웃나라에서 동요를 부르는 어른들의 모임이나 합창단이 생겼다는 소식보다 우리 부산에서 이런 단체와 모임들이 생긴다면 국제적인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오늘은 창가에 서서 들릴 듯 말 듯 동요 한 소절을 흥얼거려 본다.

다시 찾고 싶어하는 시민의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신임관장 조일상



“미술관은 그림만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생활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21일 부산시립미술관 제 4대 관장으로 취임한 부산시립미술관 관장 조일상(59세·전 동아대학교 교수). 1998년 개관, 올해로 개관 8년을 맞은 부산시립미술관의 신임관장으로 어깨가 무거운 조일상 관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시립미술관 업무과약에 분주하다.

앞으로 부산시민과 지역미술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이라는 조일상 관장은 2년 재임기간 동안 후배, 동료 미술인들에게 더 좋은 미술관을 물려준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대학 강단을 떠나 부산시립미술관장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그는 부산시립미술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부산미술협회 이사장을 맡으면서 부산시립미술관 개관에 큰 역할을 한 조일상 관장은 취임이후 당시 개관을 준비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부산시립미술관의 현안을 살피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어떻게 하면 좋은 미술관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많은 미술인들의 자문을 받고 외국의 미술관장을 초청해 미술관을 둘러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개관을 준비한 사람으로 임기중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립미술관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나갈 생각입니다.”

조일상 관장은 부산시립미술관이 앞으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부산’이라는 지역성과 ‘시립’이라는 공공적인 기능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부산시립미술관이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

요한 과제라고 꼽는다.

좋은 전시작품 소장도 중요하고 전시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 교육,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일상 관장은 지역성과 공공성에 충실하면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시립미술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개관 당시와 달리 미술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아졌고 교통여건이 우수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미술관을 찾을 수 있다는 그는 시민들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미술관은 시민의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굳이 전시를 보지 않더라도 미술관에서 모임을 갖고 데이트를 즐기고 미술관내 레스토랑에서 담소를 즐기고 식사를 합니다.”

지금은 미술관내 지하 레스토랑사업 희망자가 나서지 않아 시민들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조일상 관장은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개관 당시 부산을 찾은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관계자와의 만남을 잊을 수 없다. 전시 기획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한 부대시설이 미술관의 얼굴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그 관계자는 후쿠오카에서도 손꼽히는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레스토랑의 카레라이스 맛을 보기 위해 미술관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한뒤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둘러보게 되어 후쿠오카 시립미술관은 항상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고 자랑이 대단했다.

조일상 관장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따라 부대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 전시 기획 장르를 확대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시민들이 시립미술관을 더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그동안 기획전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소 어려웠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획전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쉬운 미술 강좌, 작품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외국의 유명 기획전도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유치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 5일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선진국의 주말 예술 문화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도 구상하고 있다.

1973년부터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해온 조일상 관장은 목공예가로 그동안 우리 목공예 전통을 현대 조형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3년 ‘옛 것과 새 것의 조화’를 주제로 개인전을 가진 조일상 관장은 당분간 작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부산시립미술관을 찾는 시민들과 함께 달래고 싶다.



부산시립미술관은 각종 전시, 미술강좌 외에 라이브공연, 영화 상영회를 가져왔다.



숲속 발레 ‘춤추는 갈매기 반디’

김옥련 · 경성대학교 겸임교수, 김옥련 발레단 단장

발레는 한국문화에 이식된 지도 꽤나 오래된 서양 무용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 개설된 전공 갈래 중 한국무용, 현대무용과 함께 한 맥을 이루고 있는 춤 형식이다.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을 지도하기 시작한지도 10년이 훨씬 넘은 어느 날, ‘발레와 한국, 아니 부산과 연결 고리를 맺고 그리고 춤 문화 소비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부산이라는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형식이 있을까?’ ‘호두까기 인형처럼 이 땅의 창작 의지에 의해 만들 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형식의 발레 작품은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 숲속 발레가 탄생되었고 2006년 ‘꿈속의 꿈’으로 다섯 번째 무대를 앞두고 있다.

숲은 울창한 나무의 어울림이며, 온갖 식물이 뒤엉켜 있는 자연의 세계이다. 자연의 세계는 생명의 밭이고, 인간 삶의 터이며, 삶의 출발지이며 맺음의 자리이다. 따라서 숲은 인간 생명의 어제와 그리고 미래의 시간 동안 항상 함께하는 생명이 용솨음치는 샘이다. 발레 창작자로서의 꿈과 숲 의미의 만남은 숲속 발레를 낳았고, 숲의 생명정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숲속발레는 발레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 2002년 시작되었다.

신과 발레의 멋은 2002년 경성대학 콘서트홀에서 시작하여 2005년 부산사직구장까지 25회에 걸쳐 훨훨 날아올랐다. 물론 해마다 주제와 형식, 내용과 부제는 달라졌지만 모든 작품에서 초심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고 곳곳하게 외쳐오고 있다.

생명과 춤의 만남은 다시 환경과 춤의 소리로 새로운 옷을 입고 2004년 ‘춤추는 갈매기 반디’를 구상하게 되었다. ‘춤추는 갈매기 반디’는 돌섬(독도)에서 부산의 동백섬 떠나면 남쪽 나라까지 날아온 꿩이 갈매기 이야기이다.

처음 부산의 냄새를 가진 창작발레를 구상했을 때 떠오른 것이 갈매기, 동백섬, 오륙도, 동백꽃 등이었다. 아무래도 무용극이다 보니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갈매기 이미지가 떠올랐고 갈매기에 대해 공부하다 독도의 꿩이 갈매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전체 4장으로 구성된 ‘춤추는 갈매기 반디’는 1장 파도를 넘고, 2장 바람을 타고, 3장 고향을 찾아, 4장 춤추는 갈매기로 구성, 엄마 갈매기 보보와 아기 갈매기 반디가 독도에서 동백섬으로 긴 여행길에 오른다. 파도를 넘어 동백섬에 온 반디는 동백나무 숲속에서 잠시 쉬던 중 길을 잃게 되고 엄마 보보와 헤어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된다. 새 친구들과 동백섬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보보는 훌쩍 자라 엄마 갈매기 보보와 상봉하여 독도를 향해 힘찬 날개 짓을 한다.

‘춤추는 갈매기 반디’는 독도지킴이 사상으로 시작하여 부산사랑, 나라사랑, 민족사랑을 담아 우리 숲속발레로 승화시켜냈다. 이 춤 또한 다른 숲속 발레에 등장하는 작품들의 경우처럼 갈매기를 모방한 동물 모방 춤을 선보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갈매기 춤이 아니었다. 생명을 위한 춤, 환경구원의 소리였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망언을 시작하기 전 부산 사랑으로 시작한 춤이었지만 공연이 무대에 오른 뒤 때마침 독도에

● 작품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춤추는 갈매기 반디’는 독도에서 머나먼 남쪽 동백섬으로 날아온 갯이 갈매기 반디 이야기를 발레로 표현했다.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부산과 독도를 날아다닌 갯이 갈매기 반디의 이야기를 담은 ‘춤추는 갈매기 반디’도 주목을 받았다.

올해 5월에도 숲속발레 ‘꿈속의 꿈’은 다시 한 번, 숲속발레의 초심을 노래한다. 구성은 1.OPENING 2. 숲 마을의 이야기(하루가 열리고 한 낮의 만남, 저녁의 모임) 3. 꿈속의 지금으로 이루어진다. 꿈속에서 숲속마을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던 한 아이가 삶의 지혜를 찾기 위한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숲속친구들에게 여행에서 터득한 지혜로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이는 자연 찬미와 자연사랑, 생명사랑의 과정을 지나 인간의 삶의 방법을 일깨워주는 숲속발레의 변하는 모습이다. 매체 활용을 통한 표현의 다양성 등을 통하여 문명과 기술, 그리고 예술과의 만남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번 작품도 숲속발레의 생명사랑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게 꾸몄다.

생명사랑의 사상은 모든 예술의 공통성이다. 숲속발레에서는 이 생명사상은 단순히 작품의 근처에 있는 작품의 기조가 보다 진일보된 형식으로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이유는 숲속발레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발레로서의 완성에 그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춤은 누구나가 생활 속에 즐길 수 있는 생활의 한 방편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예술 춤의 소비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는 특정 계층을 위해 창작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숲속발레는 숲의 숭고한 정신처럼, 모든 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춤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 발레무대 열어온 김 옥 련



“3만 명 어린이들 앞에서 발레 무대를 갖는다는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창작 발레무대를 선보여온 발레리나 김옥련씨는 1년 중 5월이 가장 바쁘다.

과연 발레로 동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 시작된 숲속발레는 시작 후 입소문이 나면서 5월 5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공연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봄부터 5월에 열리는 숲속 발레 5번째 작품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보낸 김옥련씨는 올해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하게 되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동심의 춤나래를 펼쳐 보인다는 기쁨으로 공연준비에 신이 난다.

“처음 3만 명이 지켜본 사직야구장 공연 때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아시아드 경기장을 찾아

온 4만 명의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지 못한 발레를 보고 해맑은 꿈을 꾸고 즐겁게 웃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숲속 발레는 딸과 공연장을 다닌 김옥련씨가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무용공연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다 그 자신이 직접 아이들을 위한 발레 작품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을 구상한 김옥련씨는 아이들 마음에 아름다운 숲을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연 타이틀을 숲속 발레로 정하고 1년간 구상한 끝에 2002년 첫무대 ‘Let’s go forest’를 무대에 올렸다.

“숲속 발레를 시작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보다 제가 더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독도에서 동백섬까지 날아온 갈매기 반디의 긴 여정을 그린 ‘춤추는 갈매기 반디’는 부산의 어린이들에게 부산 사랑, 독도사랑, 가족 사랑을 일깨워 주기 위해 구상한 작품이다. 좋은 무대를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에 후원자를 찾아 나서는 발품을 팔아야 하지만 아이들과의 행복한 만남을 준비하는 김옥련씨의 마음은 언제나 즐겁다.

역사로 보는 국악이야기 - 가야금

홍희철 · 고신대, 경성대, 부산교대 외래교수

서울에 일이 있어 KTX기차를 자주 이용한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세 시간도 걸리지 않기 때문인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다. KTX가 개통되고 줄곧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는데 얼마 전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다. 정차역마다 내리는 승객들을 자세히 보니까 정차역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충분히 남았음에도 하나같이 분주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자다가 화들짝 놀라 황급히 서두르기도 한다.

며칠 전, KTX를 이용하면서 승객들이 왜 그리 분주했는지 알게 됐다. 기차가 정차역에 도착하기 5분전쯤 무렵, 굉장히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음악을 안내방송으로 틀어주는데 대부분의 승객들이 그 음악에 맞춰서 짐을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제법 시간이 남았는데도 승객들에게 내릴 준비를 시킨 그 악기는 바로 가야금(伽倻琴)이었다. 리듬은 자진모리, 휘모리 등 빠른 템포의 경쾌한 장단이였다.

만약, KTX의 정차안내 음악으로 대아쟁(궁중음악 등 느린곡을 연주하는 악기)이나 느린 템포의 진양조장단(가장 느린 민속악 리듬) 등을 들려줬다면 아마도 상당수의 승객들은 자던 잠을 계속 자든지 아니면, 느린 음악에 취해 더 깊이 푹아 떨어질게 뻔했을 것이다. “주무시거나 바깥풍경에 정신이 팔린 승객들은 가야금의 빠른 가락에 맞춰서 미리미리 짐 챙기고 내릴 준비 하시라” 는 것이 철도청의 계획이었던 셈이다.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고대국가의 하나였던 가야왕국의 악기다. 가야는 고대 경남지역은 물론 전라도 동부와 경북 남부 일대까지 영역을 넓혔던 강국이었다. 북방 기마문화와 남방 해양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했던 가야는 오늘날의 일본지배층을 있게 한 나라로서 몇 년전, 일본 천황이 자신의 혈통에는 한반도의 피가 흐른다고 말해 일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나라가 고대 가야국(伽倻國)이다. 일본은 가야를 임나(任那)라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줄곧 있었던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주된 이유로 가야지배설(임나일본부설)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어쨌든 가야금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6세기 무렵, 가야국의 가실왕(嘉實王)이 당나라의 현악기를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몇 년전, 경주에서 장경호(長傾壺-목이 긴 항아리)라는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그런데 장경호를 제작한 연대가 삼국사기의 가야금 기록보다 3세기정도 더 거슬러 올라간다.

또 몇 년전, 전라도에서 삼한시대의 고대 가야금의 원형으로 보이는 유물이 발굴됨에 따라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중국악기의 일방적인 모방이나 아류정도의 악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한반도에 이미 오래전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던 ‘어떤 현악기’가 있었고, 후에 중국이나 고구려, 백제 등으로부터 유입된 현악기에 가야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창작해 만든 악기가 아닐까라고 추측해보는 것이 그리 억지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야금은 훗날, 가야국이 망할 때쯤 우륵에 의해 신라로 전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야금을 '신라금' (新羅琴-시라기 고토)이라 부른다.

가슴 아픈 망국의 역사를 가진 탓인지 가야금은 듣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매우 색다른 느낌을 준다. 느린 음악을 연주하는 '법금' (정악가야금), 빠른 음악 연주를 위해 조선후기에 개량된 '산조가야금', 그리고 창작연주를 위해 개량된 '25현가야금' 등 세 가지 가야금 모두 각기 특징이 있다.



먼저, 정악가야금은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다. 마치 봄바람이 살랑부는 날씨 좋은 오후에 느티나무 아래 큰 평상에서 그윽한 녹차를 생각나게 하는 음색을 가진 악기라 할 수 있다. 아마 신라로 망명한 우륵이 이 법금으로 경쾌하고 빠른음악을 연주할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망국 가야를 생각하며 이제는 신라의 악기가 되어버린 이 가야금으로 깊은 망국의 슬픔을 달래지는 않았을까.

산조가야금은 조선후기 급변하는 신분변화와 수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전란을 거치면서 탄생된 판소리에서 파생되었다고 전해지는 '산조와 민간음악' (빠르고 감정표현이 뛰어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과감히 개량한 악기다. KTX에서 들려줬던 악기가 바로 이 산조가야금이다. 크기가 정악가야금에 비해 작고 날씬해, 체구가 작은 사람도 쉽게 연주할 수 있고, 더욱 맑고 빠른 음악을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악기다.

음색은 매우 아름다우며 기쁠 때 연주하면 경쾌한 소리를 내고, 슬플 때 연주하면 애처로운 소리를 내는 묘한 악기다. 누구나 쉽게 입문 해 볼 수 있는 악기이지만 깊은 연주법과 농현(비브라토), 시김새(표현기법)는 오랜 연륜이 필요한 악기라 할 수 있다. 맑은 시냇물 같은 선율을 가진 산조가야금은 세상의 그 어떤 현악기에도 비유하기 힘든 매력적인 악기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25현가야금은 이전에 새로운 시도로 만들어진 18현가야금, 21현가야금 등 몇차례 개량된 뒤에 나온 가야금으로서, 제법 오랫동안 연주되는 악기인데, 특징은 줄이 많아 화음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농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서양 하프 소리에 비해 우아하고 화려하고 거기다가 우리만의 느낌인 깊은 농현을 통해 더욱 곱삭은 맛을 느낄 수 있어 좋은 악기이다. 요즘 들어 국악관현악단과 작곡가들에 의해 창작곡 연주용으로 즐겨 쓰이고 있다.

가야금! 사실 가야금은 부산의 악기라고도 할 수 있다. 옛날 부산 지역도 고대 가야왕국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가족과 함께 하는 5월이다. 바쁜 일상 중에 쌓인 피로를 가야금의 선율로 풀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듯싶다. 오늘, 가까운 음반매장에 들러 가야금 음반이라도 한 장 사서 들어보는 여유를 가져보자. 그리고 KTX 기차에서 들려주는 곡이 무슨 곡인지 알아 맞춰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 아닐까.

■ 권하고 싶은 가야금음반

- 서울 새울 가야금 삼중주단(SKC) • 김남순 가얏고(서울음반) • 황병기의 침향무, 비단길
- 황의종 작곡 5집 - 琴의 전설(신나라뮤직) • 가야금앙상블 - 사계(폴리미디어)

새와 의자

— 하의수의 그림 〈일상적 관계〉

김형술 · 시인

‘글쓰는 니가 듣기엔 진부한 이야기겠지만’이라는 전제를 단 채 친구에게서 메일이 왔다. ‘때때로 그런 생각들을 하긴 했지만 요즘 들어 부쩍 사람 사는 일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요지의 편지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그건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만큼 또한 구구절절 답장이 필요없는 편지이기도 했다.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런 걸,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누구나 가끔씩 제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온몸으로 살아내는 삶의 찰나들이 의미없고 허무하게 생각되는 실의기를 맞게 되는 것 또한 인간의 삶이 가진 하나의 사이클일텐데 뭘. 그래서 나는 손전화를 꺼내들고 엄지손가락을 몇 번 움직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로 답장을 대신 했다. 언제 술이나 한 잔 하지 뭐.

어쩌면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것들 중의 하나일지도 모르는 술이라는 물질과 술을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실의기를 치료하는 훌륭한 치료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때때로 혹은 언제나 술은 인간이 가지지 못했으나 늘 가지게 되기를 꿈꾸는 날개를 아주 잠깐 달아주기도 한다. 그것이 비록 술이 깨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라고는 해도 인간의 어깨에 잠시 매달리는 투명한 날개와 날개의 시간은 소중한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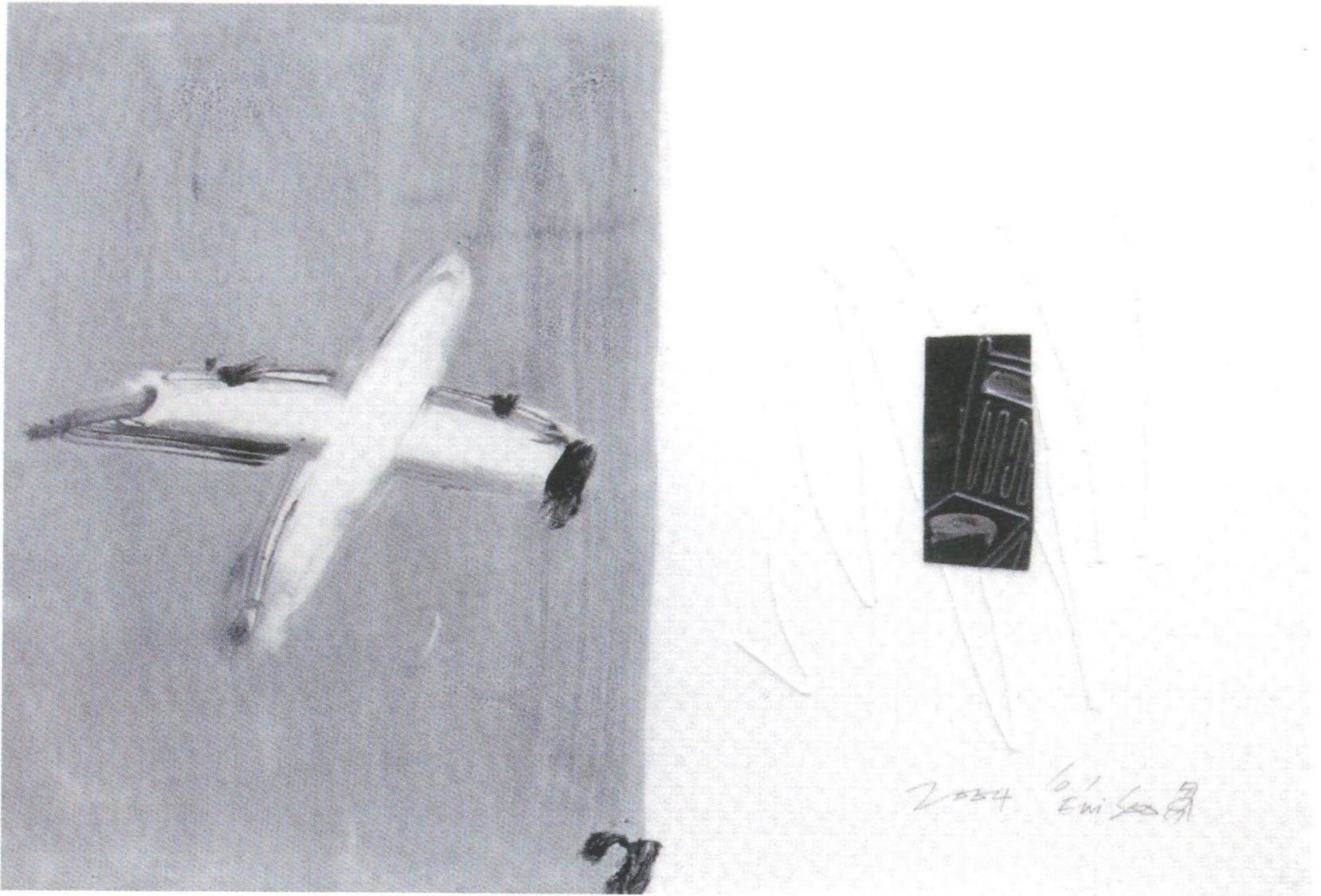
술을 마시는 시간은 또한 편안하고 아늑한 의자에 잠시 앉게 되는 일이기도 하지 않을까...

사회적 지위와 부의 척도 등 사회적 계급을 암암리에 드러내는 일상의 의자가 아니라 원하기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앉아 쉴 수 있는 절대평등의 의자. 그러니 술이나 한잔 하지 뭐, 하는 나의 일견 생똥맞은 답장을 받은 친구는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그래, 의자와 날개가 필요한 시간이야, 라고.

부산의 판화가 하의수의 그림 〈일상적 관계〉는 2004년도에 발표한 연작 시리즈 중의 한 점이다. (그러나 이 그림은 판화가 아닌 회화에 가까운 작품으로 일부 판화의 기법이 도입된 다중적인 기법의 작품들이다) 이 연작의 그림들에는 일관되게 흰색과 회색의 간결한 색채를 가진 배경에 단순한 형태로 묘사된 새가 등장하는데, 그 속엔 아주 짧은 단문의 문장처럼 설명이 배제된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앙 혹은 귀퉁이에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된 의자(또는 의자의 일부)가 놓여있기도 하다. 의자와 새, 얼핏 낯설고 대조적인 상징을 내포한 두 개의 사물이 흰색과 회색의 바탕색으로 구획된 두 개의 화면 속에 놓여있는 상황은 흥미롭다.

허공을 제 영토로 삼아 제 의지대로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는 새와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는 상관없이 지상에 네 발을 내려놓은 채 인간이나 혹은 자연의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제가 자리한 곳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의



- 하의수 작 '일상적 관계'

자의 운명은 극명하게 대조적이다. 그건 바람 속을 가볍게 날아오르는 새의 무게와 대부분의 생을 안정감있게 한 자리에 붙박혀 있어야 하는 의자의 무게만큼이나 먼 거리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속의 의자와 새의 거리는 가까운 지척이다. 혹시 의자는 자신의 머리 위를 나는 새를 꿈꾸고 새는 또 끊임없이 공간을 이동해야 하는 고단함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의자를 동경하는 건 아닐까. 새는 어떤 바람을 제 삶의 통로로 가지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무늬와 색깔을 가진다. 의자는 어떤 장소에 놓이느냐에 따라 모양과 색깔과 무늬가 달라진다.

그렇듯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비록 다르고 인간이 부여한 상징의 거리가 하늘과 땅만큼이라고는 해도 의자와 새는 많은 공통점을 가졌다. 지상에 두 발을 디딘 채 삶을 영위하는 인간 또한 살아있는 동안 늘 세상의 다른 곳을 꿈꾼다는 점에서 새와 다르지 않다.

아니 어쩌면 인간은 평생을 지상에 못박혀 실용을 위한 일상에 복무하면서도 자유로운 새를 꿈꾸는 의자인지도 모른다.

자신이 가진 생래적으로 대조적인 상징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새와 의자가 나란히 '일상적 관계' 라는 제목 아래 놓여있다. 이 의외의 풍경은 마치 새의 삶과 의자의 삶은 다르지 않으며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일상의 자장 안에 놓이는 것들의 운명이 상투적으로 진부하고 우울하며 권태로운 것이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듯 하다. 그러니 그 우울하고 권태로운 일상의 시간들이 발견하는 것들이 새와 의자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봄날이 왔다

김희진 · 영화감독

〈봄날은 간다〉란 노래와 영화가 있다. 노래와 영화 모두 아쉬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 ‘봄날’은 놓치면 아쉬워지는 행복을 의미할 것이다. 잠시 우리 곁에 머물렀다 떠나는 포근한 봄처럼 행복도 오래 머무는 법이 없다. 있을 때 잘할 걸 하고 미련을 갖는 횃수가 찾아지는 만큼 나이를 먹고, 어느 듯 지나 온 인생 모두가 봄날이 된다. 놓친 행복을 쫓아 뒷걸음질치기 보단 다시 다가 오는 봄처럼 새롭게 찾아오는 행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그럼 봄은 언제나 다가오는 것이니 행복 또한 항상 찾아 올 것이라는 희망이 생길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로 영화의 도시가 된 부산엔 아직 부족한 게 많다. 여러 가지 중 하나는 영화제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영화들을 일상 중에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산엔 지금 ‘시네마테크 부산’이 예술영화 상영관으로 운영 중이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내에 위치한 ‘시네마테크 부산’은 질 높은 작품들과 희귀 영화들을 잘 선별해 보여 주고 있지만 접근성의 문제로 아쉬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예술 영화 상영관의 조성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마침 올 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 예술영화관이 얼마 전 선정되었다. 부산엔 CGV서면 12와 남포동 국도극장예술관 두 곳이 결정되었다. CGV는 기존 인디영화관이 운영되어 오던 그대로 예술영화관 자격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지만 국도극장예술관이 예술영화관으로 선정된 의미는 각별하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심지인 PIFF 거리에 예술영화전용관이 생긴 것이니 말이다.

국도극장예술관은 국도극장 2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극장의 모습을 선보였었다. 극장의 자리는 일제시대의 건물이 있던 자리로 예전엔 부산지역 영화 배급회사들의 사무실이 집결해 있던 곳이었다. 마치 서부영화에서나 봄직한 테라스형의 반원 모양 건물로 테라스를 따라 미닫이문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한 칸 한 칸 영화 배급사나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다. 목조로 만들어진 그 역사적 건물이 헐리고 지금의 국도극장예술관으로 되살아난 것이니 이 역시 이번 선정의 의미를 높인다고도 할 수 있다.

국도극장예술관은 마침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대거 등장하는 시점에 시작한 단관 극장이라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운영이 어려웠었다. 어쩔 수 없이 애니메이션 상영관과 제한상영관 등의 이름으로 특성화를 꾀하기

도 했는데 그 호응이 높은 것은 아니어서 휴관과 폐관을 여러 차례 거쳤다. 영화 동호회 '레이트 쇼'의 기획으로 몇 번의 예술 영화 재개봉 감상회가 열리고 최근엔 DVD를 통해 상영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예술영화관 선정은 국도극장예술관이 상업 영화 위주의 멀티플렉스 극장들과 분명한 차별을 갖고 경쟁해 줄 것과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정신적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 진다.



질 높은 작품들과 희귀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는 예술영화관 '시네마테크 부산'.

국도극장예술관은 지난달 <망종> <굿 나잇 앤 굿 럭> <천국을 향하여> 등의 작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술영화 상영을 시작하였고, 어린이 전용 영화관과 독립영화 상영관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제 어렵게 비디오로만 찾아보던 영화들을 극장에서 필름으로 온전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넓어진 것이다. 이제 국도극장예술관은 예술영화관으로 선정되어 일정한 보조금을 받게 되어 일정 부분 운영의 부담을 덜긴 하겠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편성하게 위해서는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앞서야 한다. 극장이란 결국 관객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예술영화와 저예산 영화, 독립영화들을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니 부지런히 부산에서도 영화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박지원 감독의 디지털 장편영화 <그녀의 서른 번째 생일>이 마침 전주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반가운데 좋은 결과와 함께 저예산 영화 배급의 한계를 딛고 제대로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났으면 한다. 작년부터 준비되던 영화들도 빨리 촬영이 시작되었으면 하고, 아직 개봉하지 못한 전수일 감독의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도 빨리 대중 상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한창 촬영 중인 이명훈 감독의 <슈퍼 따릉이>도 기대되는 작품이다. 작년 메이드 인 부산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이 작품은 단편이었던 전작을 현재 장편으로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재미나게도 자전거가 주인공인 이 영화는 컴퓨터 그래픽 없이 프레임/콤마 촬영이라고 하는 한 컷 한 컷 이어 찍는 방식으로 만들어 졌는데, 전혀 어색함 없이 색다른 즐거움을 줬었다.

봄이라 모두들 신바람이 들었으면 하건만 아직 세상은 그리 부드럽지가 못한 것 같다. 올 해는 더 다양한 새로운 문화 행사들이 열리는 것 같고 영화 쪽에도 새로운 계획들이 마련되는 중이다. 봄날을 그냥 보내지 말고 자신만의 신바람을 느끼며 행복해하길 바래 본다. 영화가 우리에게 때때로 행복한 꿈을 안겨 준다면 영화를 즐기며 봄날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영화인들도 저마다 자신만의 봄을 영화로 구현해 주길 바란다. 봄이 많으면 행복도 많을 것이다.

관객이여 깨어나라

- 〈관객 모독〉

변미선 · 연극배우, 부산대 강사

- 배우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

- 자전거를 거꾸로 세워 안장을 땅에 닿도록 하고 바퀴가 멈출 때까지 그 돌아가는 소리를 잘 듣고 바퀴살을 지켜볼 것
- 토론이 언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잘 살필 것
- 출발하는 기차와 도착하는 기차의 소리를 동시에 들어 볼 것
- 리 제이 코브가 깡두목으로 출연하는 영화 <틀라의 함정들>에서 깡두목과 미녀와의 대화 장면, 즉 미녀가 두목에게 “앞으로 몇 명이나 더 죽도록 내버려두겠어요?”하는 질문에, 몸을 뒤로 기대면서 “아직 몇 명이나 더 남았지?”하고 대답하는 깡두목의 표정을 잘 살피볼 것

연극의 4요소는 알다시피 배우, 관객, 희곡, 무대이다. 연극사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요소는 시대에 따라 어느 한 두 요소가 특히 강조되어 오면서 진행되어 왔다. 그리스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희곡과 배우가 강조되었을 것이고, 16세기 코메디아 델 아르테와 19세기 낭만주의극에서는 배우가 각광받았을 것이다. 20세기 이후로는 특히 관객이 부각되고, 배우와 관객과의 관계 속에서 무대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세기 연극에 있어 관객에 대한 중요성은 탈근대적 성향과 사회참여적 성향의 양방향에서 접근되어져 갔다. 다시 말해 근대정신인 이성과 합리의 사회체계로 인해 억압된 인간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연극의 원시회귀적 인간집단 구원의 방식이 전자이고, 전쟁과 냉전, 군부독재로 얼룩진 20세기 세계정치의 오명에 대항해 관객의 정치의식을 일깨우려는 연극이 후자이다.

독일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관객 모독〉은 정치참여적인 후자의 연극에 해당한다. 관객을 중시 여겨 관객에게 접근하려는 이상의 연극들 대부분이 시청각적 충격에 의존하는데 반해 〈관객 모독〉은 독특하게도 ‘언어’로서 관객에게 접근한다. 소통부재의 언어홍수를 그린 이오네스코식 언어가 아니라 한트케식 역설의 언어이다. 등장인물에 의한 대화가 아니라 관객에게 직접적인 욕설과 모욕적 언사를 퍼부음으로써 관객들을 희롱하는 것이다. 이러한 희롱은 관객에게 심리적 반작용을 일으키게 만들고, 기존 관극체계 혹은 사회체계 속에 안주한 관객들을 부추기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만든다.

〈관객 모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공연한 76극단은 70년대 초연 이후로 이 작품을 레퍼토리로 삼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그 실험기법 중에 하나인 관객을 향한 예상치 못한 물세레는 그들의 반연극, 언어역설극에 있어 시원한 클라이맥스 구실을 하고 있다.

관객에게 다가가기, 관객과 뒤섞이기, 관객을 참여 시키기, 관객에게 말걸기 등 관객지향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정도로 현대연극에서는 익숙한 코드이다. 현장성을 지닌 공연예술로서 연극이 타예술 장르와 차별성을 지니기 위해 장려해야 할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연극에 있어 관객참여가 마냥 긍정적인 요소인지 한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2005년 7월 부산에서 공연을 가진 76극단의 '관객모독'.

먼저 오랜 연극계의 화두이기도 한 참여연극의 예술성 문제이다. 참여연극 스스로가 예술성을 염두에

두느냐 하는 것부터 따져야겠지만, 객관적 측면에서 참여연극의 예술성은 순수연극의 예술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극의 본연의 목적인 집단적 영향이 연극형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가의 여부가 그 예술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이 어설픈 흥내내기식 구호이거나 표피적인 유희로만 흐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일 뿐이다.

다른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관객이 과연 참여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다. 연극을 보며 쉬는 마음으로 관조하고 싶은 관객도 있을 것이다. 뜬금없이 관객을 불러내곤 하는 연극성향을 눈치 챈 관객들은 은연중 앞줄관객과 뒷줄관객으로 부류가 나뉘어 지기도 할 것이다. 관객이 원치 않는 참여를 강요했을 때 그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복잡미묘한 문제 혹은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정말 확실한 참여의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원치 않았던 관객조차 매혹시키는 격정적인 동참의 경험을 선사해야 한다. 그것은 한트케가 원했던 것처럼 아둔한 과거의 시간도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도 아닌 현재 이 순간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액스터시의 경험이어야 한다.

〈관객 모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욕설들은 퍼붓는 배우들은 마치 백뮤직 없이 노래하는 래퍼들 같다. 그들의 역설적 언어를 직설적 언어로 바꾸어 축약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당신에게 욕하는 내가 밉나요? 그럼 일어나세요. 똑같은 의자에 침잠하여 앉아있는 개성 없는 인간이 되지 말고, 자유롭게 일어나서 주먹을 들어올리든, 우릴 잡으러 오든, 박수를 치든 당신의 자의식을 내세우십시오!’

배우들 : 이 거부만 일삼는 놈들아, 매일매일에 허덕이며 매여 사는 놈들아, 이 학문이나 한답시고 떠드는 놈들아, 이 분산스러운 귀족들아, 이 부패한 민중들아, 이 교양 있다는 계급들아, 이 말세를 사는 속물들아, 이 망망한 황야에서 울부짖거나 하는 놈들아, 종말이나 와야 회개할 놈들아, 보다 나은 세계를 보장하는 놈들아, 이 암흑가의 톨만 이들아, 이 만족을 모르는 무심쟁이들아, 인생의 찬미자들아, 너희들, 문화계의 명사라는 너희들, 형제자매인 너희들, 친애하는 경청자인 너희들, 이 동포인 자들이여. 여기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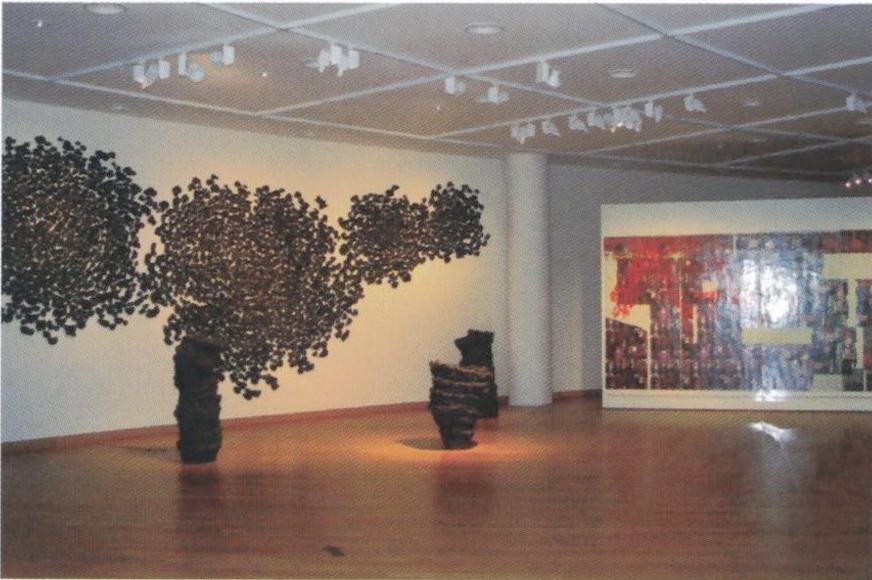
세계 최초의 건축 도자 전문미술관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가야문명의 발상지이자 김해토기의 고향인 김해시 진례면에 세계 최초의 건축 도자 전문 미술관인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이 지난 3월 24일 문을 열었다.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은 흙을 의미하는 클레이(Clay)와 건축을 의미하는 아크(-Arch)의 조합어로, 그 이름속에 도자와 건축의 만남을 지향하는 건축 도자 전문 미술관으로서의 기본 정신이 담겨있다.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에 들어서면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의 등대 역할을 하는 ‘클레이아크 타워’와 독특한 외형의 전시관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미술관 언덕 뒤편에 20미터 높이로 우뚝선 클레이아크 타워와 전시관 외벽에는 각각 1,000여장과 4,400장의 도자타일 ‘Fired Painting’이 부착되어 있다.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초대관장으로 취임한 흥익대학교 신상호 교수의 작품인 ‘Fired Painting’은 상징적인 원시미술의 패턴을 모티브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려서 구워낸 대형 타일로 건물 외벽에 부착시켜 건물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환경과 실용성, 예술성을 생각하는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의 상징물이기도 한 ‘Fired Painting’은 알루미늄 프레임을 통한 타일 부착으로, 언제든지 타일의 색상과 패턴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 마치 건물이 옷을 갈아입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본관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전시관에는 두 곳의 갤러리와 미디어룸, 라이브러리, 미술관숍이 들어서있다. 2층까지 시원스럽게 뚫린 중앙 홀은 천정까지 유리돔으로 덮여있어 자연과 하나되는 탁 트인 느낌을 준다. 중앙 홀은 9미터 이상되는 대규모 작품의 전시나 공연 등 미술관의 문화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시관 2층에 위치



세계 최초의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인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건축도자에 관한 기획전 외에도 특별전과 소장품전 등 다양한 전시가 연중 열릴 예정이다.



일반인과 아마추어 도예가들을 위한 도자체험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현장체험 학습장으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 기획전시실은 중앙의 원형홀을 따라 한 바퀴 도는 도넛 형태의 독특한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전시관에서는 6개월을 주기로 건축 도자에 관한 기획전시가 열리는 한편 2회 이상의 특별전과 소장품전 등 다양한 전시가 연중 열릴 예정이다.

건축 도자 발전을 위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보교환과 작품제작이 이루어질 연수관은 스튜디오와 실험실, 가마실 등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작업공간과 석고실과 목공실, 철재실 등 건축과 관계된 실험실, 각종 토의와 발표가 열릴 세미나실, 작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게스트룸 등이 들어서 있다. 연수관에서는 앞으로 국내외 유명작가 초청 워크숍을 비롯 국내외 신진작가를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년 2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연수관 2층과 연결된 체험관은 일반인과 아마추어 도예가들을 위한 도자 체험공간이다. 50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실과 가마실을 갖춘 체험관에서는 일반 및 단체를 위한 일일체험코스와 초·중·고급으로 나뉘어 1개월로 진행되는 정규과정인 아카데미 코스로 운영된다. 개관 후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일일 도자체험을 원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이 이어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현장체험 학습장으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수업을 위한 도예 아카데미는 5월쯤 신청자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에는 김해도예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도자점과 건축 관련 각종 서적과 미술관 기념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미술숍, 관람객을 위한 카페테리아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서 있다. 미술관 주변에는 계절마다 색을 달리하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조성된 야외 산책로와 잔디마당인 피크닉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분주한 도시생활의 피로를 씻어주는 자연 휴식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다.

개관 한달만에 10,000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은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은 현재 개관기념전 '2006 세계건축도자전'이 열리고 있다. 오는 10월 3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니노 카루소(이탈리아), 윌리엄 데일리(미국), 올레 리슬레루드(노르웨이) 등 건축도자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가져온 10개국 16명의 작품 47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기간 동안에는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의 탄생과 여정을 담은 사진전 '클레이아크 도큐멘터리'와 영상전 '메이킹 클레이아크' 등도 함께 전시된다.

■ 문의 :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055-340-7009, www.clayarch.org)

정가(正歌)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정가합창단 한국소년소녀정가단



궁중이나 상류 지식계급층에 연주되던 정악(正樂) 가운데 가곡(歌曲), 가사(歌詞), 시조(時調) 등 성악곡만을 가리키는 정가(正歌). 판소리, 민요와는 달리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정가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정가회가 2003년 창단한 한국소년소녀정가단(cafe.daum.net/junggadan)은 국내 최초의 어린이 정가합창단으로, 정가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부산정가회는 단순히 음악으로서만의 표현 뿐 아니라 인격을 수양하는데 쓰였던 정가를 통해 옛 선조들의 멋과 풍류,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서월당 1대

회장에 이어 이종록(중요무형문화재 제 41호 가사 이수자)씨가 회장으로 있는 부산정가회는 지난 2001년 결성 이후 4차례의 정기연주회를 비롯 시조창 무료 공개강좌, 부산 초·중·고등학교 교사 연수, 정악 수업을 위한 CD 제작 등 정가의 가치를 알리고 보급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왔다. 특히 어린이 정가합창단인 '한국소년소녀정가단'은 부산정가회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정가의 대중화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30여명의 단원으로 출발한 한국소년소녀정가단은 창단 3년을 맞으면서 지금은 중학생으로 자란 창단회원까지 1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창단 초기만 하더라도 어색하던 소리에 어느새 우리 전통음악의 멋이 풍겨난다.

한국소년소녀정가단은 매주 토요일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창단부터 단원들의 지도를 맡고 있는 단장 문금자씨가 이끄는 정기모임에서는 정가와 더불어 국악동요, 단소, 국악이론 등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우리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워오고 있다. 또한 매년 방학기간에는 단원들의 화합을 위해 캠프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 4월 입단한 김재원(해운대여중 3년)양은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한국소년소녀정가단과 인연을 맺었다. 초등학교 시절 시조창을 배운 적이 있어 어렵지 않게 시작했으나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게 정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재원은 무엇보다 정가를 배우면서 걸걸했던 목소리가 예쁘게 다듬어져 기분이 좋다고.

단장인 문금자씨의 제자로 정가와 인연을 맺은 정다은(다대중 2년)양은 창단 멤버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조창대회에 출전, 금상을 받기도 했던 다은이는 앞으로 대학진학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악을 공부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어릴 적부터 목청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황윤성(연지초등 6년)양은 노래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정가단 단원 모집에 선뜻 지원했다. 한때 힘들어 포기할까도 했으나 이제는 정가 배우기가 재미나기만 하다는 윤성이는 가끔은 친구들 앞에서 실력을 발휘해 많은 박수를 받는다고 한다.

한국소년소녀정가단은 2004년 5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지하철 문화마당 공연, 부산정가회 정기연주회, 부산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지난해 정기연주회에서는 아이들의 정가단 활동을 뒤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들이 뒤늦게 우리음악에 빠져 어머니회 중창단을 구성해 무대를 빛내기도 했다.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임에도 지루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보다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아쉽다는 문금자 단장.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정가를 알리고 회원 모집에 치중해왔다면 올해부터는 더 나아가 음악적 내실을 다져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가를 선보이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가곡의 원류인 ‘정과정곡’의 배경이 부산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정악이야말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부산 시민들의 무관심이 안타깝습니다.”

문금자 단장은 앞으로 힘든 과정에서도 우리 전통의 맥을 잇기위해 노력하는 단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호응을 이끄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창단 후 매년 정기모집을 통해 2기 단원까지 맞은 한국소년소녀정가단은 오는 5월경 신입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소년소녀정가단을 창단한 부산정가회는 2001년 결성이후 정가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 한국소년소녀정가단.

단소(短簫) 불어보기 <5>

채수만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서양음악이 클래식, 대중음악으로 장르가 분류되듯 국악도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으나 국악을 이해하기 쉽게 분류하면 정악(正樂)과 민속악(民俗樂), 그리고 창작국악(創作國樂)으로 나뉘어 진다. 정악(正樂)은 클래식과 같고 민속악(民俗樂)은 대중음악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 정악(正樂)이란 아악, 당악, 향악 등 궁중에서 사용된 음악과 민간 상류사회에서 연주된 음악을 말하며 화평하고 장대한 악상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정화시키는 우아함과 유유함을 갖춘 음악을 말한다. 영산회상(靈山會相), 제례악(祭禮樂), 연례악(宴禮樂), 가곡(歌曲), 시조(時調) 등이 있다.
2. 민속악(民俗樂)이란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연주된 음악으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한(恨), 흥겨움, 익살의 멋을 갖춘 생동감 있는 음악을 말한다. 시나위, 대풍류, 산조(散調), 판소리, 민요, 농악, 사물놀이 등이 있다.
3. 창작국악(創作國樂)이란 아직 정해진 용어가 없으나 1960년도 이후 전통 5음계 음악에서 12율명을 모두 사용하고 새로운 장단을 가미하며 화성(和聲)을 갖추기도 해서 작곡된 음악을 말한다. 서양음악 기법과의 교류도 포함되고 있다.

어떤 곡을 연주함에 있어 그 곡이 속한 장르를 알고 연주한다면 표현에 있어 한층 묘미를 느끼고 충실한 연주가 될 수 있겠다. 정악과 민속악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창작국악은 계속 생산되고 발전되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단소연주에 있어서 정악과 민속악만 연주하여 조상들의 삶만 엿볼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담긴 창작국악도 연주하여 단소의 멋을 배가 시켜야겠다. 단소의 지공이 5개이지만 12율을 모두 사용하여 다른 분야의 음악도 연주해 보자.

■ 시김새

서양음악은 화성(和聲)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국악은 단 선율로 이루어진 음악이 많아 그 선율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요소를 시김새라 한다. 음을 순간적으로 굴러주는 전성(轉聲), 음을 밀어 올리는 추성(推聲), 밀어 올린 음을 흘러내리는 퇴성(退聲), 음을 흔들여 주는 요성(搖聲:Vibrato), 장식음 등이 있다.

요성은 관악기에서 사용된 용어이고 현악기에서는 농현(弄絃)이라고 한다. 거문고의 싸랭, 슬기둥, 가야금의 뜰똥, 대금, 단소의 띠이어 주법, 피리의 서침표인 띠시레 주법, 해금의 잉 핫지 주법 등도 이에 속한다. 단소에 있어서 요성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소소리를 계속 이어 내면서 단전으로부터 나오는 입김을 후후후하는 기법으로 배의 움직임과 호흡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작하여 점차 빠르게 연습해본다.

2006 부산연극제 연출상, 희곡상 수상한

김 지 용



“상은 받으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큼니다. 유상훈, 이현주 등 관록 있는 배우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극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6년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바문사)의 ‘PLAY5-맨 카인드 히스토리’ 희곡과 연출을 맡아 연출상과 희곡상을 수상, 2관왕의 영광을 안은 김지용(29)씨.

지난 해 부산연극제에서 희곡상을 수상해 2연패 기록을 세운 그는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희곡이 당선되어 화제를 모은 신세대 연극인이다. 바문사는 김지용의 연출상, 희곡상 외에도 최우수연기상과 남여 우수연기상, 무대기술상, 무대미술상을 수상해 부산연극제 상을 휩쓸었다.

올해 작품 ‘PLAY5’는 김지용씨가 지난해 부산연극제에서 선보인 ‘PLAY1-오아시스’와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PLAY4-가출소녀 우주여행기’에 사회가 가진 모순을 드러내고 싶은 신세대 연극인 김지용의 의지를 담은 작품이다.

김지용을 이야기 할 때 ‘부산연극계에 혜성같이 등장한’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른다. 김지용의 오늘은 결코 혜성같은 등장이 아니다. 동아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출신으로, 대학시절 희곡은 물론 연출자로, 배우로 활동하며 오랜 내공을 쌓았다. 연극은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서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한 김지용은 직장을 그만두고 쉬던 중 우연히 극회 선배인 박찬영씨를 만나 지난 2004년 바문사에서 뒤늦게 연극활동을 시작했다.

수상의 기쁨도 잠시 10월에 열리는 전국연극제를 앞두고 부족한 부문 보완 작업을 구상하고 있는 김지용은 요즘 연출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김지용이 연출한 바문사의 ‘PLAY5-맨 카인드 히스토리’는 전국연극제에 앞서 9월 공연예술제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PSB 창사11주년 · 광역방송 기념

The Classic - 共感

- 부산시립교향악단 · 창원시립교향악단 합동 연주 -

5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 경남지역 광역방송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PSB 부산방송이 광역방송을 기념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경남을 대표하는 창원시립교향악단을 초청, 부산, 경남 음악애호가들을 위한 화합의 무대를 마련한다.

두 교향악단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번 무대는 지휘자 오충근과 장윤성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박정원,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가 이끄는 부산 가야금연주단이 지역과 세대, 장르간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The Classic - 共感'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의 지휘를 하는 오충근은 지난 해 5월,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을 지휘하여 격정적이면서도 부드럽고, 화려하면서도 정확한 음악을 표현하는 지휘자로 격찬을 받으며 한국 음악계의 뉴-리더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1982년 서울대학교 기악과(바이올린전공)졸업과 동시에 KBS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한 오충근은 1985년부터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활동, 국내 최연소 악장으로 주목받았다. 1990년 고신대학교 교수로 공개 채용된 이후 지휘를 시작한 오충근은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 Diploma를 받았고 귀국, 2000년부터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다.

지휘자 장윤성은 유학시절인 1993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열린 제 1회 국제 프로코피에프 지휘자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하며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키로프 오케스트라의 한국순회공연을 지휘하였다. 1995년 폴란드의 크라코프에서 세계 최고의 작곡가인 펜데르츠키의 교향곡 제5번 'KOREA' (한국 정부의 위촉으로 작곡)를 유럽 초연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장윤성은 2003년 4월부터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위촉되어 교향악단의 새로운 성장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창원시립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 김희조 '가야금 협주곡-관현악을 위한 산조' 보로딘 '폴로베쯔인의 춤' 최영섭 '그리운 금강산' 차이코프스키 '1812년 서곡' 등을 들려준다.



오충근



장윤성



박정원



김남순

2006 부산국제연극제

말없이 말하기-소리, 몸짓 그리고 진실

5월 5일(금)-5월 15일(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외 부산시내 공연장

연극에서의 대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소리와 움직임을 통해 진행되는 비언어적 연극(Non-Verbal Performance)의 축제로 마련되는 2006 부산국제연극제가 오는 5월 5일부터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경성대 콘서트홀·소극장, SH공간소극장, 너른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0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부산국제연극제는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한국 등 7개국 17개 작품이 참가, 소리와 움직임만으로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넘는 새로운 형식의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부산국제연극제는 해외초청작 6작품 중 5작품이 한국 초연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초청연출가와 함께하는 ‘메소드 워크숍’, 시민 누구나 참여해 숨은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10분 연극제’, 국내외 참가국 극단 관계자와 부산의 연극인들이 함께하는 상호 교류의 장 ‘BIPAF 사랑방’, 야외거리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연극제 기간동안 함께 펼쳐진다.

■ 년버벌 스페셜(Non-Verbal Special)

▷ 플리겐더 바우텐(독일) ‘발라간’ (개막작) -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세계 각국에서 모인 8명의 음악가들이 들려주는 수준높은 라이브 연주와 서커스, 마임 등이 잘 어우러진 퓨전 뮤직 서커스.

▷ 극단 레인팬 43(미국) ‘모자 쓴 두 남자’ - 6일(토) 오후 4:00, 7:00, 7일(일) 오후 3:00 경성대학교 소극장
1930년대 무성영화 스크린 속에서 튀어나온 두 남자가 펼치는 피지컬(Physical) 코메디극.

▷ 두 씨어터(러시아) ‘불면증 환자’

- 6일(토) 오후 7:00, 7일(일) 오후 3:00, 8일(월)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불면증의 초조함과 신비스로움을 몽환적 몸짓과 러시아 고유의 기괴한 목소리로 보여주는 작품.

▷ 극단 시나위(한국) ‘휘투타’ - 10일(수)~12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우리나라 전통무예로 정립된 불교 전통무술 ‘금강승 불무도’를 전통 타악과 접목시킨 무술 타악 코믹 퍼포먼스.

▷ 루미 씨어터(브라질) ‘자연, 일곱 개의 그릇’

- 12일(금) 오후 7:30, 13일(토) 오후 7:00, 14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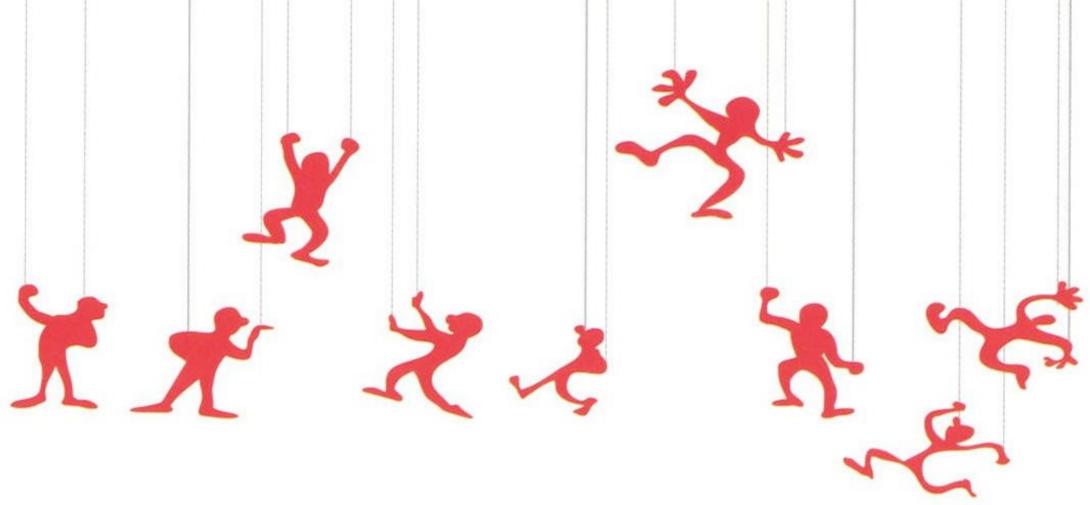
땅, 바다, 강, 태양, 짐승, 별, 공기를 상징하는 일곱 개의 그릇을 통해 자연과 인간세상 사이에 펼쳐지는 긴장감을 그린 작품.

▷ 극단 초인(한국) ‘기차4’ - 13일(토) 오후 4:00, 7:00, 14일(일) 오후 3:00 경성대학교 소극장

전쟁으로 폐허가 된 기차역을 배경으로, 전쟁 앞에 내던져진 인간들을 통해 ‘반전메시지’를 전하는 무언극.

▷ (주)예감(한국) ‘점프’ (폐막작) - 14일(일) 오후 3:00, 15일(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태권도와 택견 등 동양무술을 중심으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코믹한 캐릭터가 어우러진 미살아츠 코믹 퍼포먼스.



■ BIPAF 스테이지

- ▷ **이이무로 나오키극단(일본) '언벨런스'** - 9일(화)~11일(목) 오후 7:30 경성대학교 소극장
밸런스가 무너지는, 불안정한 것을 테마로 마임리스트 이이무로 아오키의 솔로작품과 그룹 마임극으로 짜여진 작품.
- ▷ **(주)두비컴(한국) '사랑하면 춤을 춰라'** - 6일(토) 오후 7:00, 7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대사없이 춤과 노래만으로 구성된 댄스 뮤지컬로, 주인공의 탄생에서부터 성장기의 에피소드가 춤으로 표현된다.
- ▷ **사다리움직임연구소(한국) '타이피스트'**
- 11일(목)~12일(금) 오후 7:30, 13일(토) 오후 4:00, 7:00, 14일(일) 오후 3:00 너른소극장
두 타이피스트의 일상을 통해 삶의 부조리를 유머러스하게 그려낸 부조리 코미디극.
- ▷ **하현관 마임퍼포먼스(한국) '잊혀지는 사람들II'** - 11일(목)~1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의 대표 마임리스트 하현관이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안타까움을 이미지로 표현한 새로운 퍼포먼스.
- ▷ **마임극단 세진(한국) '지니 스토리'**
- 7일(일) 오후 3:00, 6:00, 8일(월)~9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파리, 바퀴벌레, 입맞춤, 의자 등 각기 다른 캐릭터로 연기하는 마임리스트 김세진의 옴니버스 마임극.

■ 가족 나들이

- ▷ **뮤직 마리오네트(러시아) '노래하는 줄인형'**
- 6일(토) 오후 2:00, 4:00, 7일(일) 오후 1:00, 3:00, 8일(월) 오후 4:00,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목각 줄인형, 손인형, 막대인형 등 러시아에서 날아온 동화 속 인형들이 펼치는 뮤직 댄스 페스티벌.
- ▷ **극단 수레무대(한국) '어린왕자'** - 10일(수)~11일(목) 오후 4:00,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생텍쥐페리의 동화를 원작으로, 세 사람이 조정하는 분절인형과 마임, 노래로 원작의 환타지를 극대화시킨 감성인형극.
- ▷ **Terror J 자파리연구소(한국) '무암이와 섬 이야기'**
- 13일(토) 오후 2:00, 4:00, 7:00, 14일(일) 오후 1:00, 3: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제주 사람들의 삶의 고난과 즐거움을 실험적인 한지 오브제와 마임, 샌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이미지 총제극.
- ▷ **제이티컬처·주변인들(한국) '노을의 소원'** - 6일(토)~14일(일) 평일 오후 4:00, 토요일 오후 2:00, 4:00, 일요일 오후 1:00, 3:00(월요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주인공 노을이가 세가지 소원을 찾아내고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깨우쳐 주는 어린이 성장뮤지컬.

■ 특별초청공연

- ▷ **천주 온능 남예방(중국) '온능 남예방 춤'**
- 7일(일) 오후 3:00, 6:00, 8일(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중국 남동쪽에 위치한 푸젠성 지역의 오래된 해안도시 천주시 온능 남부지방의 민속춤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

■ 입장료 :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개 · 폐막작 일반 25,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적용)

■ 문 의 :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0443~4, www.bipaf.com)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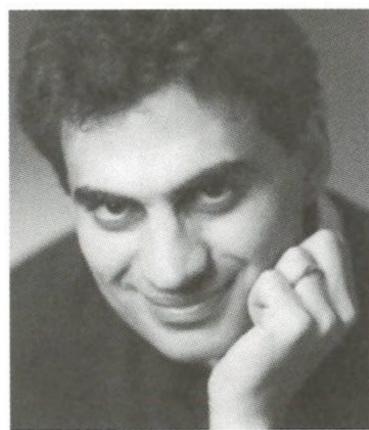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II 및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주피터 그리고 죽은 자의 노래

5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이리나 크리쿠노바



티그란 마르티로시안

지난 4월 28일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가졌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5월 4일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두 번째 무대,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연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이리나 크리쿠노바, 베이스 티그란 마르티로시안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교향곡 '주피터'와 쇼스타코비치의 대표적인 걸작 교향곡 제 14번 '죽은 자의 노래'를 들려준다.

모차르트 교향곡 중 가장 사랑받고 있는 교향곡 제 41번 '주피터'는 그리스 신화 속 최고의 신 이름을 부제로 단 만큼 완벽한 구성미와 장려한 위풍으로 모차르트의 기악곡 중 최고봉을 이루는 작품으로, 위엄과 화려함을 두고 고통 속에서 승리를 이룩해내는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에 비유되기도 한다.

러시아 출신 작곡가로 명망하고 장중한 음악을 많이 작곡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죽은 자의 노래'는 가르시아 로르카, 기욤 아폴리네르, 월계름 큐헬베겔, 라이너 마리아 릴케 등 4명의 시인이 '죽음'을 소재로 쓴 시를 작곡한 노래가 있는 교향곡으로, 죽음이라는 심각한 소재를 철학적으로 그려낸 완성도 높은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4월 28일 부산시립교향악단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I'을 통해 부산시민과 처음 만난 소프라노 이리나 크리쿠노바와 베이스 티그란 마르티로시안이 협연자로 다시 무대에 선다.

러시아 로스토프 온 돈 국립극장의 프리마 돈나로 2003년과 2005년 '골든 마스크'에서 영예로운 디플로마를 수여받은 이리나 크리쿠노바는 오페라 '나비부인', '라보엠', '투란도트', '토스카' 등 오페라 무대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여 왔다.

아르메니아 출신으로, 그네신 주립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받던 중 모스크바 시립극장에서 오페라 데뷔무대를 가진 티그란 마르티로시안은 그동안 러시아 음악콩쿠르 1등, 제 10회 국제 차이코프스키 특별상 및 디플롬, 퀸 소냐 국제음악콩쿠르 2등상, 마리안 앤더슨 콩쿠르 2등상, 시즈오카 국제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국제 성악대회에서 주목받았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좌석을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0회 정기연주회

부산MBC 창사 47주년 기념 오페라 아리아의 세계로...

5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는 오는 5월 11일 제 420회 정기연주회 '오페라 아리아의 세계로...'로 오페라 무대의 감동과 여운을 만끽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러시아 로스토프 온 돈 국립극장의 프리마 돈나 이리나 크리쿠노바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베르디, 구노, 모차르트, 로시니, 스트라우스의 유명 오페라 서곡 및 아리아를 들려준다.

첫 곡으로 연주되는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서곡은 시칠리아 무곡풍의 선율에 의한 서주에 이어 전쟁을 상징하는 주제와 격렬한 코다로 끝맺으며, 베르디의 대표적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전주곡은 1막 1장에서 짧지만 맑고 경건한 분위기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서곡으로서는 비교적 긴 연주곡인 베르디 '나부코' 서곡은 여러 테마를 연결시켜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됐으며, 구노가 남긴 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 '파우스트' 중 '발레음악'은 명쾌한 선율과 투명한 색채감으로 사랑받는 작품이다.

불과 하룻밤만에 작곡되었다고 전해지는 모차르트 '돈 조반니' 서곡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으로 극의 비극적 내용을 암시하며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은 명랑하고 경쾌한 오페라 전체의 분위기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스트라우스 '박쥐' 서곡은 작품 전체의 왈츠곡을 간추려 엮은 듯한 밝고 유쾌한 분위기의 곡이며, 마지막으로 연주되는 스트라우스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스트라우스의 수많은 곡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호평을 받는 곡이다.

이밖에도 베르디 오페라 '에르나니' 중 1막에 나오는 엘비라의 아리아 '에르나니, 나를 데리고 도망가 주오',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가장 유명한 아리아 중 한 곡인 '줄리엣의 왈츠(이 꿈속에 살고 싶어라)',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중 2막 피날레 앞에 나오는 돈나 안나의 아리아 '내게 그런 말 하지마오', 스트라우스 오페라 '박쥐' 중 '로잘린데의 차르다시(고향의 소리)'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소프라노 이리나 크리쿠노바가 들려준다.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좌석을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3회 정기연주회
가족과 함께 하는 'Lively & Lovely May'
5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편안한 클래식 무대 'Lively & Lovely May' 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대학교 교수, 포항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성완교수의 객원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그동안 아카데미한 연주를 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청소년들을 위해 연주회 타이틀 'Lively & Lovely May' 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다소 지루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한 무대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과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모차르트 '춤춰라, 기뻐하라, 행복한 혼이여' 와 쇼스타코비치 재즈와 발레 '모음곡' 을 선곡, 위대한 두 작곡가를 이해하는 무대를 갖는다.

첫 무대는 스페타나의 오페라 '팔려간 신부' 중 3개의 춤곡으로 연다. 체코를 대표하는 오페라로 꼽히는 '팔려간 신부' 는 보헤미아 풍의 유모어가 풍부한 희극이다. 부산시립극단 단원 이현주의 내레이션으로 들려주는 프로코피에프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 는 용감한 소년 피터가 숲 속의 늑대와 싸워서 착한 오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음악으로 나타낸 것으로, 곡이 시작되기 전에 해설자가 등장인물(동물)의 주제와 이를 연주하는 악기를 소개하고 해설자의 이야기를 곡 사이에 끼워 넣고 이를 음악으로 묘사, 매년 5월 어린이들을 위해 자주 연주되고 있다.

그 외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와 성남시립오케스트라 수석단원 배경환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비올라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 교향곡 내림나장조' 는 모차르트가 남긴 두 번째 '협주 교향곡' 으로,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두드러지지만 외면적인 화려함을 흠뻑리지 않는 뛰어난 곡이다. 마지막 무대는 지휘자 박성완이 발췌한 쇼스타코비치의 재즈와 발레 모음곡으로 장식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체 14곡 중 제1곡 행진곡, 제2곡 익살스런 왈츠, 제3곡 춤, 제4곡 폴카, 제5곡 왈츠, 제6곡 종곡으로 구성, 오케스트라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연주로 만날 수 있다.



박성완



김경희(소프라노)



임병원(바이올린)



배경환(비올라)

■ 입장료 : 균일 2,000원

■ 문 의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9),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무용단 제 54회 정기공연

물. 비늘

5월 23일-24일 화-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에서는 오는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창작무용 '물. 비늘'로 2006년 첫 정기공연을 마련한다.

독일 후기의 대표적 낭만파 시인 푸케의 창작동화로,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 되지만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다시 물방울로 변해버린다는 물의 요정 '운디네'를 소재로 한 창작무용 '물. 비늘'은 다양한 얼굴과 색깔, 질감을 지닌 '물'의 속성을 우리 삶에 투영해 삶의 다양한 얼굴과 표정을 춤언어로 표현한 작품이다.

안무와 구성을 맡은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는 "사람이 태어날 무렵의 인체 수분은 90%지만 자라면서 활동기에 접어들면 70%, 사망할 즈음에는 50%까지 낮춰진다"며 "삶의 긴 여정동안 몸에 비축해두었던 수분을 조금씩 세상밖으로 던져내듯 비우고 던져내는 진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며 이번 작품에서는 물과 더불어 살아가고, 물에 의해서 살며 물처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바람을 그려낼 예정이다.

무용 애호가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특별히 이틀간 펼쳐지게 될 '물, 비늘'은 23일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화성이, 24일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김주령이 주인공인 물의요정 '운디네' 역을 맡아 열연한다.

프로그램

프렐로그 '꽃처럼'

Scence 1 '그물.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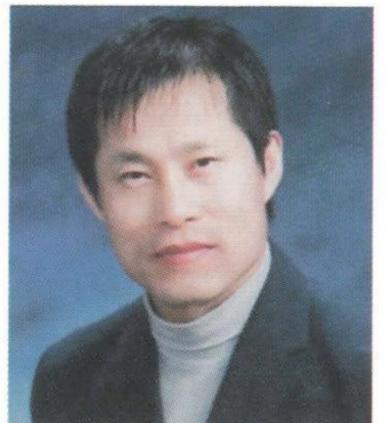
Scence 2 '가느다란...'

Scence 3 '빛과 색'

Scence 4 '각각의 비늘'

Scence 5 '비움'

- 안무 및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대본 및 연출/조주현



홍기태



이화성



김주령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좌석을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시립합창단의 7080 콘서트 그 두 번째 이야기...

5월 25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김강규



임병원



해바라기

지난해 7월 특별공연으로 올려져 중년 청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던 부산시립합창단 7080 콘서트 두 번째 무대가 오는 5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최근 들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7080의 가요들을 선정, 관객과 함께 노래하며 즐기는 '7080 콘서트'는 세계 각국의 수준높은 합창음악을 들려주던 부산시립합창단의 기존 레퍼토리와는 차별화되는 이색무대로, 노래를 좋아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대중적인 무대이다.

추억, 사랑, 이별...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등 3개의 주제로 마련되는 1부에서는 바닷가의 추억, 눈이 큰 아이, Yesterday once more, 그대는 나의 인생, 내가 만일, 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사랑이여, 사랑을 위하여 등 추억의 가요와 팝송을 들려준다. 특히 2부에서는 7080의 대표적인 가수 해바라기가 출연해 모두가 사랑이예요, 내 마음의 보석상자, 사랑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 등 그의 대표곡과 젊은 그대, 그대 떠난 빈들에서, 꿈의 대화 등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가요를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들려준다. 또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하지행이 가요 이등병의 편지와 늙은 군인의 노래를 해금 독주로 들려준다.

특히 이번무대는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청중들을 위해 오전 11:00 공연을 추가 감상기회를 늘렸다.

프로그램

추억/바닷가의 추억, 눈이 큰 아이, Yesterday once more

사랑/그대는 나의 인생, 내가 만일, 내가

이별...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사랑이여, 사랑을 위하여

해금독주/이등병의 편지, 늙은 군인의 노래

초대가수 해바라기와 함께/모두가 사랑이예요,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너, 내 마음의 보

석상자, 어서 말을 해, 사랑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 노래하는 곳에 등 수곡

■ 입장료 :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오전 11:00 공연은 균일 10,000원이며, 해바라기가 출연하지 않습니다.)
(이 공연은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볼 수 없는 공연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입장료를 40% 할인해 드립니다.)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Ⅲ 모차르트 음악의 밤

5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4월 28일 제 419회 정기연주회에서 막이 오른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3번째 무대가 오는 5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윤상운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김형규와 최양옥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17세기 영국의 농촌에서 유행한 쾌활한 2박자의 춤 콩트르당스의 명쾌한 선율이 담긴 '5개의 콩트르당스', 썰매타기 장면을 묘사한 '3개의 독일무곡' 중 '썰매타기' 등 부산에서 자주 연주되지 않은 오케스트라 소품과 모차르트 교향곡 1번, 39번 등을 선곡, 흥겨운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 협연하는 피아니스트 김형규는 서울대학교와 독일 국립 베를린 예술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연주자로는 처음으로 동유럽 무대에 데뷔, 베오그라드 라디오 심포니와 협연해 찬사를 받았다. 전 세계를 무대로 폭넓은 연주 활동을 펼친 김형규는 각국의 평론가들로부터 '테크닉과 음악성을 겸비한 연주가(더 타임즈)'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고 다양한 음색' '타고난 직관적인 감성(데어 타게스슈피겔, 베를린)'을 가진 연주자로 호평 받은 바 있다. 한국음악평론가협회, 한국음악팬클럽, 월간 <음악동아>가 선정한 '올해의 음악가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형규는 현재 한양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함께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최양옥은 서울대학교와 맨해튼 음대 대학원, 프랑스 파리 에펠 노르말 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한국 & 우크라이나 수교 10주년 기념연주회, 한일 친선 음악회, 이태리, 파리, LA에서의 독주회 및 듀오 연주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양옥은 현재 송실대 콘서바토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형규와 최양옥이 함께 연주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 10번 내림마장조 작품 365(316a)'는 모차르트가 누나 난넬과 함께 연주하기 위해 쓴 곡으로 곡 전체를 통해 귀향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듯 밝은 기분이 지배적이다. 모차르트 음악의 밤 마지막은 모차르트 '교향곡 제 39번 내림마장조 작품 543'으로 장식한다. 모차르트 최후의 교향곡 3개 중 한곡으로 고전과 교향곡의 극치를 보여 주는 이 작품은 '사랑과 광명의 노래, 혹은 음으로 나타낸 아름다움의 개가'라는 등의 찬사를 받고 있다.



윤상운



김형규



최양옥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회원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대극장

2006 숲속발레 창작 무용극 '꿈속의 꿈'

2일-3일 화-수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7:30



지혜로운 삶과 어울림의 사랑을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숲속발레 '꿈속의 꿈'.

전 3장(1장 오프닝, 2장 숲 마을 이야기, 3장 지금의 꿈)으로 구성된 '꿈속의 꿈'은 화려함과 장엄함 그리고 발레의 독특한 멋을 통해 발레의 진수를 보여준다.

- 연출, 대본/김준기
- 안무/김옥련 · 작곡/전현미

입장료 일반 15,000원

학생 · 어린이 7,000원

문의 김옥련무용원(627-4113, 626-9486, 016-579-9486)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II
및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주피터 그리고 죽은 자의 노래

4일 금요일 오후 7:30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과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을 기념, 모차르트 최후의 교향곡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주피터'와 쇼스

타코비치의 걸작 '죽은자의 노래'로 마련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제41번 다장조 '주피터' 작품 551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14번 사단조 '죽은자의 노래' 작품 135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이리나 크리쿠노바(소프라노)
티그란 마르티로시안(베이스)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2006 부산국제연극제-한국 **사랑하면 춤을 춰라**

6일-7일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3:00



우리나라를 비롯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7개국 17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국제연극제의 참가작 '사랑하면 춤을 춰라'.

댄스와 뮤지컬이 결합된 댄스컬 장르를 추구하고 있는 이 작품은 노래를 제외한 모든 언어가 춤으로 표현된다.

- 연출/최광일

출연

황동주, 최힘찬, 박수아, 이재규, 한승훈, 박종원, 김양배, 김정민, 강유진, 이현정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

부산대학교 개교 60주년 · 부산일보사 창립 60주년 기념오페라

마탄의 사수(Der Freischütz)

9일-10일 화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후 4:00, 7:30

부산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동문, 재학생

이 함께 마련하는 베버 오페라 '마탄의 사수'.

부산에서 초연되는 이 작품은 서곡부터 마지막 피날레까지 시종일관 독일 특유의 어둡고 침울함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 마음 속의 희망과 고통, 공포를 매우 진한 색깔로 표현했다.

출연

전병호, 송신혁, 이은민(이상 막스), 배수진, 이은미, 김경희(이상 아가테), 장은영, 김지영, 전영무(이상 엔헨), 최대우, 이태영, 김도형(이상 가스파르), 현용혁, 이정훈(이상 오토카르), 박재현(쿠노), 이연기(에레미트), 오세민, 최성준(이상 킬리안) 외

- 총감독/김문희(부산대학교 교수)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 합창지휘/이성훈(부산대학교 강사)

- 연출/김성경(밤비니오페라제작소 대표)

- 관현악/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오케스트라

- 합창/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합창단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부산대학교 음악학과(510-1747)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0회 정기연주회
부산 MBC 창사 47주년 기념

오페라 아리아의 세계로...

11일 목요일 오후 7:30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러시아의 소프라노 이리나 크리쿠노바가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0회 정기연주회.

대형 오페라 공연들이 남긴 감동과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서곡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르디/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서곡

베르디/ '라트라비아타' 전주곡

베르디/ '에르나니' 중 '엘비라의 아리아(에르나니, 나를 데리고 도망가 주오)'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왈츠 (이 꿈속에 살고 싶어라)' 등 수곡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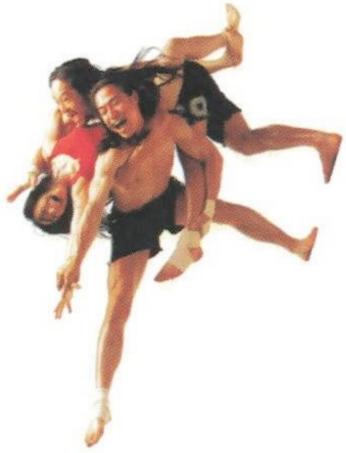
- 협연/이리나 크리쿠노바(소프라노)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2006 부산국제연극제-폐막작 한국
점프

14일-15일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오후 7:30



2006년 부산국제연극제를 통해 다시 만나는 (주)에감의 화제작 '점프'.

지난해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

작으로 관심을 모았던 '점프'는 태권도를 소재로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상품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기획, 2003년도 초연 이후 2년여의 짧은 시간 동안 1,000회 이상 공연되어 30만 관객의 호응을 받았다.

세계 최대의 공연 예술 축제로 알려진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에 출품된 1,800여개의 작품 중 우리나라 공연사상 최초로 티켓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린 '점프'는 올해 영국, 스페인, 독일 등 유럽 10개국과 캐나다, 미국 등의 해외 투어를 갖는다.

- 예술총감독/최철기
- 연출/이준상 · 작곡/이동준

입장료 일반 25,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

영혼을 깨우는 소리

기드온콰이어 제 10회 정기연주회

16일 화요일 오후 7:30



깊이 있는 중후한 남성 사운드를 들려주는 기드온콰이어의 제 10회 정기연주회.

기드온콰이어 추천 '신인 교회음악인' 등이 함께하는 절정의 합창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Swing Low, Swing chariot*, 준비 되었나 등 수곡

- 지휘/연명희
- 협연/김방실(소프라노,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입장료 초대

문의 기드온콰이어(011-867-6529)

PSB 창사11주년 · 광역방송 기념
The Classic - 共感

-부산시립교향악단 · 창원시립교향악단 합동 연주 -

17일 수요일 오후 7:30



오충근

장윤성

PSB 부산방송이 창사 11주년과 광역방송을 기념하여 부산과 경남을 대표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창원시립교향악단, 국내 최정상 음악가들과 함께 들려주는 'The Classic - 共感.'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객원지휘, 한국 지휘계의 선두주자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휘자 오충근과 창원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장윤성이 한 무대에서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축전 서곡

김희조/가야금 협주곡-관현악을 위한 산조

보로딘/폴로베쯔인의 춤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차이코프스키/1812년 서곡 등 수곡

- 지휘/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고신대 교수), 장윤성(창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협연/박정원(소프라노, 한양대학교 교수) 부산가야금연주단(예술감독/김남순)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PSB(1577-7600, www.psb.co.kr)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3회 정기 연주회

가족과 함께 하는 'Lively & Lovely May'

18일 목요일 오후 7:30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부산대학교 박성완교수의 지휘로 온 가족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에드

[주]포에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051) 627-2563(대) FAX: 051) 627-2560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다록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편안한 클래식 무대를 마련한다.

프로그램

스메타나/오페라 '팔려간 신부' 중 세 개의 춤곡

모차르트/춤춰라, 기뻐하라, 행복한 혼이여
바장조 작품 165

프로코피에프/어린이를 위한 음악 이야기
'피터와 늑대' 작품 67

모차르트/바이올린, 비올라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교향곡 내림마장조 작품 364

쇼스타코비치/모음곡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포항시립교향악단 지휘자)
- 소프라노/김경희(창원대, 부산예고 출강)
- 바이올린/임병원(경성대학교 교수)
- 비올라/배경환(성남시립오케스트라 수석)
- 내레이션/이현주(부산시립극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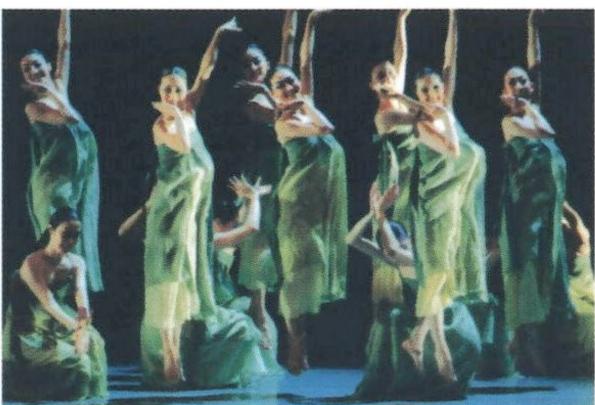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6109)

부산시립무용단 제 54회 정기공연

창작무용 '물. 비늘'
(The surface of the water)

23일-24일 화-수요일 오후 7:30



인간을 사랑하면 인간이 되지만,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다시 물방울로 변해버리고 마는 물의 요정 '운디네(Undine)'를 통해 물과 사람과의 공존, 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얼굴과 표정을 다양한 춤 언어로 담아낸 부산시립무용단 2006년 첫 정기공연 '물. 비늘'.

· 안무 및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 안무자)

· 대본 및 연출/조주현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시립합창단의 7080 콘서트 그 두 번째 이야기...

25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7080 세대들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부산시립합창단에서 마련하는 특별연주회 '7080 콘서트 그 두 번째 이야기...'.

지난해 큰 호응으로 2006년 두 번째 무대를 갖게 된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7080세대를 대표하는 해바라기를 초청, 해바라기의 히트곡과 7080 세대들이 즐겨 부른 추억의 가요를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추억/바닷가의 추억, Yesterday once more, 눈이 큰 아이

사랑/그대는 나의 인생,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내가

이별..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사랑이여

해바라기와 함께/모두가 사랑이예요, 너, 내 마음의 보석상자, 사랑으로 등 수곡

· 지휘/김강규

· 협연/임병원(경성대학교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하지행(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해금)

· 특별출연/해바라기

오전 11:00 공연 균일 10,000원

오후 7:30 공연 R석 20,000원

입장료 S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III
모차르트 음악의 밤

26일 금요일 오후 7:30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3번째 무대로 마련되는 '모차르트 음악의 밤'.

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윤상운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김형규와 최양옥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17세기 영국의 농촌에서 유행한 쾌활한 2박자의 춤 콩트르당스의 명쾌한 선율이 담긴 '5개의 콩트르당스', 썰매타기 장면을 묘사한 곡 '3개의 독일무곡' 중 '썰매타기' 등 부산에서 자주 연주되지 않은 오케스트라 소품과 모차르트 교향곡 1번, 39번 등을 선곡, 흥겨운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5개의 콩트르당스 K.609 중 제 1곡, 제 3곡

모차르트/3개의 독일무곡 작품 605 중 제 3곡 '썰매타기'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 10번 내림마장조 작품 365(316a)

모차르트/교향곡 제 1번 내림마장조 작품 16 등 수곡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협연/김형규(피아니스트, 한양대학교 교수), 최양옥(피아니스트, 송실대 콘서바토리 피아노과 교수)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0주년, 부산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금난새와 함께 하는 오페라 여행

'카르멘' 갈라

27일 토요일 오후 5:00, 8:00

1996년 첫선을 보인 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한 금난새와 함께 하는 오페라 여행 '카르멘' 갈라 공연 부산 무대.

지휘자 금난새의 재치있는 해설로 집시 여인 카르멘과 순진한 청년하사관 돈 호세 등 4명의 엇갈린 사랑과 욕망을 그린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쉽고 유쾌하게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전주곡, 하바네라, 내 어머니의 소식 전해주 오!!, 간주곡, 집시의 노래, 투우사의 노래, 꽃노래 등 수곡

출연

강희영, 강학윤, 김종화, 서경숙(5:00)
김정화, 허동권, 조현수, 전이순(8:00)
· 관현악/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입장료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 청소년석 10,000원
(4인 기준 가족석 30% 특별할인,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그랜드오페라단(809-8445)

부산 CBS 여성성가단 제 10회 정기연주회

29일 월요일 오후 7:30

1982년 창단이후 복음 성가를 전해온 부산 CBS여성성가단의 제 10회 정기연주회.

부산 CBS여성성가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부산합창제, 성가합창제, 필리핀 선교찬양, 알래스카 어머니합창단 초청연주, 호주 시드니오페라 하우스 성가 대제전 등에 참가해 왔다.

프로그램

신자되기 원합니다, 쌍투스, 알렐루야, 주의 자녀들아, 찬양해 주님을, 에바다, 주의 사랑안에, 주여 나를 구원 하소서, 글로리아
· 지휘/이외균
· 특별출연/현미, 삼손중창단, 사랑의 부부합창단

입장료 초대

문의 단장 황숙희(311-4180, 017-568-4407)

김진홍의 춤... 그 먼길

30일 화요일 오후 7:30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승무), 제 97호(살풀이춤) 이수자로 우리 춤의 맥을 이어온 김진홍 전통춤 한마당 '김진홍의 춤... 그 먼길'.

먼길'.

부산시 문화상(1987년)을 수상한 김진홍 선생은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한국 무용협회 이사, 부산민속예술보존회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김진홍 전통춤 연구회 예술감독으로 우리 춤의 전승, 보급에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살풀이춤, 산조춤, 동래입춤, 동래 한량춤, 지전춤, 태평무, 승무
· 특별출연/문장원(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 야류 기능보유자), 엄옥자

(부산대학교 교수), 김온경(전 신라대학교 교수)

입장료 초대

문의 김진홍전통춤 연구회 (646-0845, 011-9966-0845)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17회 정기 연주회

이와자키 요우이치교수와 함께하는 합창이야기

6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일본 후쿠오카교육대학교 교수, 전 일본합창연맹 후쿠오카현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와자키 요우이치의 객원지휘로 들려주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17회 정기 연주회.

키타큐슈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와자키 요우이치는 2003년과 2004년 전 일본합창콩쿠르에서 연속 금상을 수상하며 어린이 합창음악의 진수를 들려주고 있다.

프로그램

종교음악/Ave Maria Gratia Plena, Alleluia, Salve Regina
뮤지컬 모음/When You Wish Upon A Star, 미녀와 야수 중 'Beauty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남포동 자갈치 중앙아치탑 앞
각종 공연 예매처
Tel: 245-3843

문우당서점의 특별한 혜택!
문우당서점 회원카드로 문우당과 CGV(영화)에서 사용! 도서구입시 5%적립 CGV 10%적립 및 특정요일 할인
가마골소극장 할인! 문우당 영수증제시로 수요일은 문우당의 날로 50%할인 화·목·금요일 20%할인(일부대관공연 제외)
문우당 창립 51주년 기념 1년간 책구매시마다 사은품 증정 부산교통수첩(버스노선 외), 세계명언집(수첩형), 세계지도 캘린더 기타 사은품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자유이용권 할인매장
책과 지도의 백화점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와 지구본 대형매장(대형코팅 전문)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충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코코아 각 100원)

and the Beast', 뮤지컬 '캣츠' 중 'Memory' 등 수곡

- 객원지휘/이와자키 요우이치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특별출연/부산진구여성합창단(지휘/김성현), 나경혜(첼리스트)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6131)

중극장

제 21 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5월 1일-3일 월-수요일 오후 7:30

■ 1일(월) 구미정 피아노 독주회

서울대학교, 미시간대학, 뉴욕시립대에서 음악수업을 한 구미정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내림 나장조 K.333

쇼팽/발라드 제 1번 사단조 작품 23, 제 2번 바장조 작품 38, 제 3번 내림가장조 작품 47 등 수곡

■ 2일(화) '현대 작곡가의 밤'

Piet Swerts/Galop

윤이상/Interludium A

· 연주/서심미 & 최정순, 김복수, 황정미, 장진이, 안경수

■ 3일(수) 'Solo & Duo'

리스트/발라드 2번

베베른/피아노를 위한 변주곡 작품 27

· 연주/육순진, 김은희, 조혜영, 박현정, 김혜린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소영(011-9336-1679)

2006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독일 플리겐더 바우텐 발라간(BALAGAN)

5일-6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7:00



올해로 3회를 맞는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으로 선보이는 독일 플리겐더 바우텐 '발라간(Balagan)'.

2005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헤럴드 엔젤상'을 수상한 '발라간'은 수준 높은 라이브 연주와 서커스, 마임 등이 어우러진 '퓨전 뮤직 서커스'로 배우들의 기예와 광대가 표현하는 풍자적 이미지들이 잘 어우러진다. '발라간'은 히브리어로 '엉망진창'이란 뜻이다.

- 연출/세바스티아노 토마
- 음악/마르크 차잇 & 세르게이 스베신스끼

입장료 일반 25,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

2006 부산국제연극제

중국 천주 온능남예방 온능 남예방 춤

7일-8일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오후 7:30



한국에서 첫 선을 보이는 천주시 여성무용단 천주 온능남예방의 '온능 남예방 춤'.

2004년 12월 초연된 천주 온능남예방의 우아하고 섬세한 춤은 뛰어난 천주시의 민속 풍습과 함께 독특한 매력을 인정받고 있다.

프로그램

위엔샤오지에(元宵節), 휘안 여인들의 열정, 향기로운 차의 고요한 매력, 웰링 페르시아 여인들, 활기찬 봄의 북소리 등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

2006 부산국제연극제

브라질 루미 씨어터 자연, 7개의 그릇

12일-14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오후 3:00



2005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작으로 호평받은 브라질 루미 씨어터의 '자연, 7개의 그릇' 부산무대.

이 작품은 땅, 바다, 강, 태양, 짐승,

별, 공기를 상징하는 일곱 개의 그릇을 통해 자연과 인간세상 사이에 펼쳐지는 긴장감을 드라마틱하고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했다.

· 연출 및 안무/타다시 앤도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부산국제연극제(627-0443)

안일웅 작품 발표회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시리즈(1)-

16일 화요일 오후 7:30



현대음악의 메카 다름슈타트 현대 음악제에서 주목받은 작곡가 안일웅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리아산의 고뇌' 연작 작품 초연무대.

이번 무대는 삶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작곡한 4곡이 20개의 손가락, 두 대의 피아노를 통해 전개되는 안일웅의 20번째 작곡발표회

이다.

프로그램

안일웅/두 대의 피아노-스무 손가락을 위한 모리아산의 고뇌Ⅳ-Ⅶ

· 연주/심경숙, 원영아, 이현주, 김미연(이상 피아노), 전영수, 박용갑(이상 타악기)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한소자(753-2082)

故 김석형 3주기 추모음악회

18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음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음악기획자 故 김석형의 3주기를 맞아 클래식아트매니저, 아트인 부산, 부산콘서트콰이어에서 마련하는 추모음악회.

프로그램

존레빗/키리에(페스티벌 미사 中)

미키스 데오도라키스/기차는 8시에 떠나고

최석태/김석형을 기억하며...

김철화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 수곡

출연

김현식(테너), 김동윤(테너), 정양섭(테너), 이은민(테너), 최상재(바리톤), 백재진(바이

올린), 김영(플룻), 고충진(클래식기타)

· 합창/부산콘서트콰이어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3,000원

문의 부산콘서트콰이어(011-821-6092)

故 임종길 교수 추모음악회

19일 금요일 오후 7:30



우리 소리신음악회와 신라대학교 음악학과가 故 임종길교수 1주기를 맞아 마련하는 추모 음악회.

프로그램

임종길/가곡 '낙동강', 현악 4중주 1번, 실내악 '소리' 등 수곡

출연

조영윤, 이경옥, 김미성, 조현미, 백진현, 정년경 등 교수 및 강사

입장료 초대

문의 김수진(017-550-1299)

이동심 피아노 독주회

20일 토요일 오후 7:30

동의대학교 이동심교수의 피아노 독주회. 연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미국 클리브랜드 음악원,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음악수업을 한 이동심은 미국에서 여러차례 독주회와 Lecture 음악회, 챔버 활동을 해왔다.

서울시립교향악

단, 클리브랜드 음악원 교향악단 등과 협연한 바 있는 이동심은 백재진, 박병훈과 함께 동역트리오를 창단, 활발한 실내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하이든/변주곡 바단조 Hob XVII:6

히나스테라/소나타 제 1번 작품 22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작품 23 제 2번 내림 나장조 등 수곡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문화(635-9081)

벨리시미(Bellissimi)와 함께 하는 사랑의 가족음악회

21일 일요일 오후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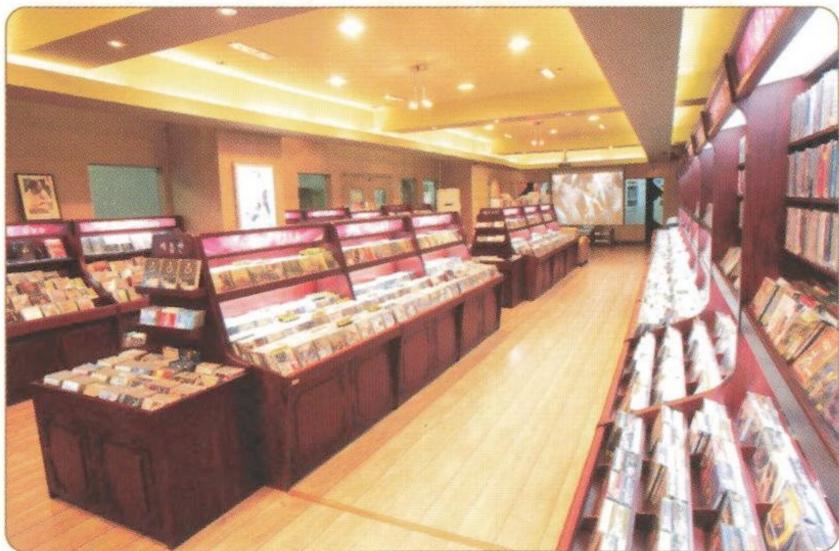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동문들로 구성된 벨리시미의 제 3회 정기연주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귀에 익은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1부 희망과 사랑/아침의 노래, 다정한 내 아버지, 어머니, 사랑은 영원하리

2부 향수와 자유/언덕위의 집, 아 목동아, 오 나의 태양 등 수곡



부산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음악애호가 바라던 클래식음반전문매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 비바체 목요음악감상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비바체클래식

해운대 선플라자 빌딩 1층(지하 2, 3, 4층 무료주차)

TEL 743-0003, FAX 743-3301, vivaceclassic.co.kr

출연

신진범, 김채연, 박현정, 이은미 외
NGN 어린이 방송합창단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이지영(010-7314-0682)

최혜련 귀국 피아노독주회

22일 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뒤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귀국한 최혜련 귀국 피아노 독주회.

귀국 후 고려아오페라단의 창단 오페라 '팔리아치'와 '버섯피자' 음악코치로 활동한 최혜련은 현재 남성 성악 앙상블 '4Tenor+1Bass' 전속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KV. 333 B-dur
리스트/오베르만의 계곡
라흐마니노프/코렐리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42

입장료 초대

문의 최혜련(010-3752-7106)

성가와 가곡의 밤

23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지역 성악가들로 구성된 부산음악사랑회가 들려주는 성가와 가곡의 밤.

프로그램

성가곡/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기도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곡/내 맘의 강물, 거문도 뱃노래, 남촌 등
수곡

출연

신용희, 김현주(이상 소프라노), 서명보, 김지호, 김성보(이상 테너), 장은익, 한성권, 민정식(이상 바리톤)

· 클리리넷/홍성택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성보(011-559-4919)

작곡모임 '잉태' 가정의 달 기념 작곡발표회

5월의 향기

24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에서 왕성한 작곡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작곡인들의 모임인 '잉태' 창작가곡 발표회.

2002년 결성된 잉태는 2002년부터 권오철, 백승태, 최석태 회원 3인이 '세 남자의 힙차이야기'로 합창창작곡을 발표해왔다.

이번무대는 윤미순, 정영자, 이숙례, 하경민, 이한나, 김순자, 이은숙, 손순이, 김미순, 김옥선, 김재원, 박미정, 박영선, 차정연 등 (사)부산여성문학인회 회원들의 시에 곡을 붙여 첫 창작가곡발표회이다.

프로그램

권오철/천년의 바람속에
구영립/상사화와 백일몽
최석태/낙동강을 보며
백승태/산사의 향기
송필석/어머니의 방 등 수곡

· 연주/테너 강정호, 박찬, 소프라노 류연희, 구현진, 바리톤 권영준, 서숙지(피아노), 윤민화(피아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최석태(019-623-1547)

이태리음악연구회 제 23회 정기연주회

25일 목요일 오후 7:30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 이탈리아어 텍스트의 오페라 아리아와 이중창으로 꾸미는 이태리음악연구회 제 23회 정기연주회.

당시 새로운 오페라의 지평을 연 천재작곡가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 '돈 죠반니' '피가로의 결혼' '여자는 다 그래' 등의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이중창을 만날 수 있다.

출연

민상순, 이윤정(이상 소프라노), 김철수, 박찬(이상 테너), 고연호, 김대성, 김길수, 이득수(이상 바리톤), 권영준(베이스)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오동주(017-556-5058)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로르 파브르 칸 초청 콘서트

26일 금요일 오후 7:30



프랑스가 사랑하는 피아노계의 마돈나로 사랑받고 있는 로르 파브르칸 초청 콘서트.

랑데부 드 부산 2006년 행사의 일환으로 다시 부산을 찾는 로르 파브르 칸은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한 후 17세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위상을 수상한데 이어 2001년 5월 뉴욕의 국제 프로피아노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 같은 해 10월 카네기홀에서 리사이틀을 가졌다.

프로그램

쇼팽/폴로네이즈 작품 26 제 2번
라흐마니노프/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고트살크/6개의 작품
알베니스/에보카시온/엘알바이신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 프랑스문화원(465-0306)

Sound for Double Reed(Oboe&Bassoon Duo Recital)

27일 토요일 오후 7:00

네덜란드 콘스탄틴 휴이겐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장정호와 츠야마 국제음악제 더블리드 콩쿠르 1위상을 수상한 나고야필하모닉 오보에 주자 테라시마 요스케가 함께 하는 한·일 듀오 무대.

프로그램

슈만/Five Pieces in Folk Style
Op.102 for Bassoon and Piano
모차르트/Sonata for Bassoon and Violoncello in 내림 나장조 KV 292

플랑/피아노, 오보에, 바순을 위한 트리
오 등 수곡

· 첼로/김정현 · 피아노/김승환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장정호(011-387-4390)

바라밀합창단 창단연주회

28일 일요일 오후 7:00

순수 아마추어 어머니합창단으로 결성된 바라밀 합창단의 창단연주회로 우리귀에 익은 가곡과 7080가요, 신작 가곡을 들려준다.

· 지휘/정수연 · 반주/최지선

입장료 무료

문의 정수연(011-830-3239)

제 3회 우리시, 우리노래

5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한국창작가곡협회와 아지무스오페라단이 우리시와 우리노래 보급을 위하여 매 년 봄에 개최하는 창작가곡 무대로 이번 무대를 위해 작곡된 부산의 새노래와 애창가곡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소프라노 독창/봄 비, 숲, 임에게, 회상,

바리톤/봄소식, 청산은 날보고

테너독창/반가운 섬 오륙도, 낯선 곳

합창/장다리 꽃 등 수곡

출연

이한나킴, 고예정(이상 소프라노), 전병호(테너), 고봉수(바리톤)

· 합창/청솔여성합창단, 단비울남성중창단

· 특별출연(어린이)/정수현, 김희경 외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7,000원
(부산사랑티켓 참가작품)

문의 손욱(011-9520-4649)

소극장

2006 부산국제연극제

한국 마임극단 세진 지니 스토리(JINY story)

7일-화요일 일요일 오후 3:00,
6:00 월-화요일 오후 7:30



부산국제연극제 참가작으로 선보이는 부산의 마임극단 세진의 'JINY Story'는 일곱 개의 단편 속에 시-공을 초월해 각기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한 사람의 마임리스트 JINY의 일곱 가지 이야기이다.

프로그램

파리, 바퀴벌레, 입맞춤, 의자,

TV, 동영상, 영상 ...

어느 광대 이야기, 사진사

· 연출, 출연/김세진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

2006 부산국제연극제

한국 하현관 마임 퍼포먼스 잊혀지는 사람들 II

11일-12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의 대표 마임리스트 하현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퍼포먼스 '잊혀지는 사람들 II'.

잊혀져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안타까움을 다양한 장르로 표현한다.

· 연출/하현관

· 음악/이세호

출연

최웅, 하현관, 안성혜, 배진만, 이세호, 김영림, 손남숙, 신재숙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

인형극단 까치 상설 뮤지컬 극장 팡팡동화나라

해님달님

26일 금요일 오후 10:20, 11:30



인형극단 까치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워 주기 위해 매월 셋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동래문화회관과 부산문화회관에서 마련하는 상설 뮤지컬 극장 팡팡동화나라.

5월 무대는 전래동화 '해님달님'을 무대에 올린다.

입장료 균일 1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인형극단 까치(633-2114)

향기오카리나 앙상블

가족과 함께 하는 오카리나 여행

28일 일요일 오후 6:00

아름다운 오카리나 선율을 보급하고 있는 향기오카리나 앙상블 연주회.

프로그램

합주/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Perhaps Love

어린이 합주/피노키오, 하늘나라 동화

독주/바람소리, 추억, 물놀이, 소풍, 봄, 눈

의 꽃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향기오카리나 앙상블(515-0528)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국도아트홀(247-4242)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소극장 너른(622-3572)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화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 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11-8518)

(※ 가나다순)

음 악

제 462회 가람화요초청음악회
제 30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재부 작곡가의 밤

2일 화요일 오후 7:30 가람아트홀

주창근, 최석태, 진소영, 하순봉, 조영윤, 정승원 등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의 창작곡으로 마련되는 무대.

· 연주/신현희, 김현정, 김영지, 김문주, 김지민, 정년경, 김남숙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기획(626-6664)

금정수요음악회

매수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3일 소프라노 여수희 창작동요 독창회

· 찬조출연/롯데어린이중창단

■ 10일 소프라노 송윤경 독창회

· 찬조출연/손명균(트럼펫), 김화정(테너)

■ 17일 김수진 작곡발표회

음악으로 듣는 소설 트럼펫 왕자

· 출연/윤성원, 김상효, 안영중, 이상진, 홍희철, 김판수 외

■ 24일 소프라노 김현숙, 김미성 듀오콘서트

■ 31일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 비올리스트 김은진 듀오콘서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박환영 대금 연주회

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 종묘제례악, 제 45호 대금산조, 제 72호 진도씻김굿 이수

자로,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박환영 대금 독주회.

프로그램

박종기제 대금산조, 박대성류 아쟁산조, 신청(神廳) 소리, 고풀이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대학교 국악학과(510-1739)

클래식과 함께하는 가람 프리미엄 태교강좌

매주 수요일 오전 11:00
가람아트홀

· 3일 태교음악 Study

· 10일 5월의 태교 명사-하이네, 릴케

· 17일 위대한 작곡가들을 찾아서-모차르트

· 24일 위대한 연주자를 찾아서-바이올린의 거장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입장료 4회 40,000원

문의 가람아트홀(626-664)

2006 김영임의孝 대공연

6일 토요일 오후 3:30, 7:00
KBS 부산홀

'회심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경기명창 김영임이 어버이날을 맞아 매년 마련하는 흥과 멋이 어우러지는 초대형 국악뮤지컬.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A석 50,000원

문의 KBS 비즈니스(620-7181)

제 3회 이지무스 오페라단 아카데미 콘서트

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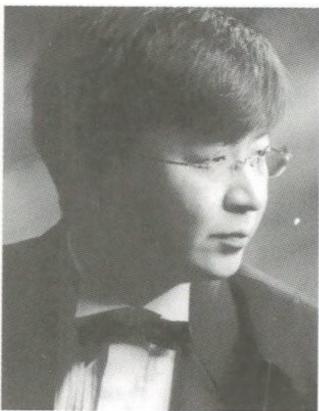
아지무스 오페라단이 음악 전공자들의 발표무대를 위해 마련한 아카데미 콘서트.
중·고등부와 대학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입장료 초대

문의 손욱(011-9520-4649)

자녀와 아버지가 함께하는 '효' 음악회

8일 월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아버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국내외 가곡과 동요를 들려주는 글로벌아트홀 한낮의 음악회.

·출연/최호진(테너), 이우선(소프라노), 이선영(피아노), 글로벌어린이합창단

입장료 균일 15,000원 · 2인 가족권 20,000원 · 3인 가족권 30,000원
(5/1일까지 예약시 식사 무료제공,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5월 사랑 음악회

9일 화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극장



김성진 고봉수 신정순

테너 김성진, 바리톤 고봉수, 소프라노 신정순, 기타리스트 고충진, 오카리나 박종근 등이 출연, 오페라 아리아를 비롯 가곡, 칸초네, 영화음악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고봉수(010-9608-8799)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2006 정기연주회 교과서 음악회

1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무정한 마음, 넌 왜 울지않고, 산촌, 산아, 보리밭, 그집앞 등 학창시절 배웠던 국내외 유명가곡을 들려주는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2006 정기연주회 '교과서 음악회'.

·출연/김길수, 이홍득, 이은민, 박기범, 안상철, 윤정윤, 박기덕

입장료 일반 3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안상철(016-9302-5271)

부산색소폰앙상블 창단 연주회

16일 화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현직 음악교사와 색소폰 아카데미 원장 등 관악기를 전공한 부산의 연주인들이 모여 결성한 부산색소폰앙상블 창단연주회.

·출연/전홍찬, 천용대, 강동욱, 하중수, 김호제, 하광오

·협연/하경희(첼로), 정양섭(테너)

입장료 무료

문의 하중수(011-871-6289)

부산예술고등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동문음악회

1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예술고등학교 개교 20주년을 맞아 현재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함께하는 동문음악회.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글로벌아트홀 한낮의 음악회 도용복과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세계 문화 기행

16일 화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전 세계 100여 개국을 탐방한 오지탐험가이자 아마추어 성악가인 도용복의 음악과 여행이야기로 꾸며지는 특별한 무대.

입장료 균일 15,000원(5/9일까지 예약시 식사 무료제공,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이성은 피아노 귀국 독주회

1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전문연주자과정과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취득한 피아니스트 이성은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마장조 작품 109

슈만/사육제 작품 9 등

입장료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문의 이성은(010-7580-0612)

제 2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 청소년 관악페스티벌

19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 시내 5개 고등학교 관악부가 출연하는 부산 청소년 관악페스티벌.

출연학교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지휘/변혜주)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지휘/고일봉)

동의공업고등학교(지휘/배일환)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지휘/권점용)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지휘/손상득)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2006 쇼 오페라

2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영남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부산콘서바토리가 함께 하는 오페라 아리아 무대.

· 출연/김달의, 김소라, 이지현, 윤장미, 성희령, 허경미, 조지현, 배수진(이상 소프라노), 윤석(테너), 방상욱(바리톤), 박재현(베이스), 이수학, 노헌정(이상 피아노), 김희숙(플룻)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손경균(011-841-4636)

부산신포니에타 청소년 협주곡의 밤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가 이끄는 부산신포니에타가 마련한 청소년 유망주들의 무대.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 출연/이효진(부산예중 2년), 이미림(부산예고 2년), 손양지(부산대 2년), 이지윤(부산대 4년 · 이상 바이올린), 이지인(문현중 3년), 윤예지(부산예고 2년 · 이상 첼로), 하도연(부산예중 3년 · 피아노)

입장료 초대

문의 김영희(510-2911)

An-ti Stimmung 작곡 발표회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매년 새로운 기획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는 작곡단체 An-ti Stimmung의 작

곡발표회. 자연을 주제로 영상, 무용과 접목시킨 조희주, 정수란, 김유리, 정지영, 주창근, 진소영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초대

문의 진소영(010-3024-7877)

제 463회 가람화요초청음악회

이에스더 바이올린 독주회

23일 화요일 오후 7:30 가람아트홀



서울대학교 기악과 및 동대학원, 미국 UCLA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바이올리니스트 이에스더 독주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기획(626-6664)

부산예술중학교 제 8회 정기연주회

24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 예술교육의 요람인 부산예술중학교 개교 7주년 기념으로 펼쳐지는 정기연주회.

· 지휘/남상재(관현악), 이상철(합창)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예술중학교(512-8092)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스트링 오케스트라 연주회

2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스트링오케스트라

김민정

매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스트링 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

프로그램

알프레드 리드/Suite Concertante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 9번 내림마장조
· 지도교수/이정일 · 협연/김민정(피아노)

입장료 초대

문의 울산대학교(052-259-1207)

부산국악작곡가회 제 5회 연주회

부산의 시와 음악

2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창작곡 발표를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부산국악작곡가회는 지난 2004년부터 '부산의 시와 노래'라는 주제로 부산시인의 시를 소재로 한 성악곡과 기악곡을 발표해왔다.

프로그램

조익래/헌화가(강은교 詩)
김월란/숲에서 쓰는 편지(이해인 詩)
이은경/섬(최영철 詩)
황의중/물운대 풀잎이 길을 건너네(강은교 詩)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대학교 국악학과(510-1739)

부산예술고등학교 제 19회 국악 정기연주회

2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예술고등학교 국악전공자들이 마련하는 제 19회 정기연주회.

· 지휘/홍희철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고등학교(514-1232)

창작실내악과 가곡의 밤

3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창작음악의 보급과 활성화에 힘써온 한국 음악지도협회 작악회에서 마련하는 창작실내악과 가곡의 밤.

프로그램

김성광/진달래꽃

이진영/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듀엣

김성희/그리움, 밤하늘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김성광(010-9865-3391)

테너 전병호와 함께하는 한낮의 음악회

30일 화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부산대학교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뒤셀도르프-뒤스부르크 연합국립극장과 하겐 시립오페라극장 전

속 솔리스트를 역임한 바 있는 테너 전병호와 함께하는 글로벌 아트홀 한낮의 음악회.

입장료 균일 15,000원(5/23일까지 예약시 식사 무료제공,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테너 조성흠 독창회

6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의대와 이탈리아 움베르토 조르다노 국립음악원, 이탈리아 노동청에서 실시한 유럽연합 인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테너 조성흠 독창회.

· 우정출연/조진범(테너), 김원식(바순)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연극

권철 모노드라마 호랑이 아줌마

3월 21일(화)-5월 21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놀이소극장



이탈리아 극작가 다리오 포가 중국 여행길에서 만난 장터 연극을 옮긴 작품을 우리의 근현대사로 배경을 옮겨 선보이는 권철의 모노드라마.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놀이소극장(631-0660)

서툰사람들

4월 18일(화)-5월 2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순진한 도둑 장덕배와 훈수끼 있는 여교사 유화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로맨틱 코미디극.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출연/변진호, 김낙균, 한상민, 최윤미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팬 양의 버블 쇼

4(목)-6일(토) 오후 2:00, 4:30, 7:00(5일 오전 11:00 추가상연)
시민회관 대극장

캐나다 출신의 세계 유일의 버블 아티스트 팬 양이 선보이는 화려한 버블 아트 세계.

입장료 R석 35,000원 · S석 25,000원
A석 15,000원

문의 도브엔터테인먼트(973-9353)

2006 부산국제연극제-러시아

노래하는 줄인형

6일 토요일 오후 2:00, 4:00
7일 일요일 오후 1:00, 3:00
8일 월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목각 줄인형, 손인형, 막대인형 등 러시아에서 날아온 동화속 아름다운 인형들이 펼치는 가족뮤직 인형극.

작품

벨리댄스, 아라비안나이트, 인도 요

가요기, 집시댄스, 집시들의 합창 등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4)

2006 부산국제연극제-러시아

불면증 환자

6일 토요일 오후 7:00, 7일 일요일 오후 3:00, 8일 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불면증의 초조함과 신비스러움을 몽환적 몸짓과 러시아 고유의 기괴한 목소리로 보여주는 작품.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4)

2006 부산국제연극제-미국

모자 쓴 두 남자

6일 토요일 오후 4:00, 7:00
7일 일요일 오후 3:00
경성대학교 소극장



고전적 마술과 복화술, 감탄사가 절로 나올만한 숙련된 광대들의 움직임이 재미를 더하는 코믹 신체극.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4)

2006 부산국제연극제-한국

노을의 소원

6일(토)-14일(일) 평일 오후 4:00,
토요일 오후 2:00, 4:00, 일요일
오후 1:00, 3:00(월요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주인공 노을이 세가지 소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의 사랑임을 깨닫는 어린이 성장 뮤지컬.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4)

각설이 '품바'

7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겉쫑한 입담에 담긴 풍자와 익살스런 몸짓, 구성진 민요와 신명나는 장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각설이 '품바'.

입장료 특별석 30,000원
1층 20,000원 · 2층 15,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2006 부산국제연극제-일본

언밸런스

9일-11일 화-목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소극장

밸런스가 무너지는 '불안정'을 테마로, 기존 마임극과 달리 스피드감이 배제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이 전개된다.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4)

2006 부산국제연극제-한국

어린왕자

10일-11일 수-목요일 오후 4:00,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세사람이 조정하는 분절인형과 마임, 뮤지컬 형식의 노래로 원작의 환타지를 극대화시킨 감성인형극.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4)

2006 부산국제연극제-한국

휘투타

10일-12일 수-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불교 전통무술인 '금강승 불무도'를 전통 타악과 접목시켜 우리나라 전통의 아름다움과 힘을 보여주는 코믹 퍼포먼스극.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4)

2006 부산국제연극제-한국

타이피스트

11일-12일 목-금요일 오후 7:30,
1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14일 일요일 오후 3:00 너른소극장

일상을 통한 삶의 부조리를 유머러스하게 그려낸 부조리 코미디극. 두명의 남녀 배우가 이 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상을 기발한 몸짓과 리듬감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4)

2006 부산국제연극제-한국

무암이와 섬이야기

13일 토요일 오후 2:00, 4:00,
7:00, 14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모래를 이용한 즉흥적 그림이 영상을 통해 스크린속에 펼쳐지는 샌드 애니메이션을 비롯 한지 오브제와 마임 등으로 제주도만의 독특한 정서를 그려낸 이미지 총체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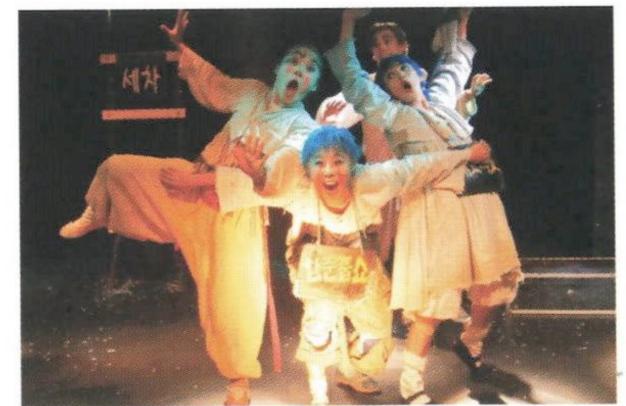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4)

2006 부산국제연극제-한국

기차4

1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14일 일요일 오후 3:00
경성대학교 소극장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작은 기차역 광장을 배경으로, 전쟁이라는 커다란 힘에 무기력하게 내던져진 인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7-0443~4)

제 20회 부산청소년연극제

17일(수)-27일(토) 오후 4:00, 7:00(20일-21일, 24일-25일 공연없음) 시민회관 소극장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문화적 소양을 길러 주기 위해 매년 마련하는 청소년연극제.

출연학교

- 17일 부산영상고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작/바스콘셀로스, 연출/이현정)
- 18일 부산전자공고 '바리데기' (작/공동창작, 연출/채수용)
- 19일 부흥고 '죽은 시인의 사회' (작/토머스 만, 연출/조영빈)
- 22일 한국과학영재학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작/톨스토이, 연출/김단령)
- 23일 대진정보통신고 '탑과 그림자' (작/이만희, 연출/박은진)
- 26일 남산고 '서툰 사람들' (작/장진, 연출/곽은정)
- 27일 금정청소년수련관 '세가지 시선' (작, 연출/이승훈)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정부가 있다.

5월 26일(금)-6월 25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허무주의에 빠진 인테리들과 펑크족을 소재로 현대도시의 자화상을 그린 작품.

- 재구성, 각본/이윤택 · 연출/남미정
- 출연/곽지숙, 최윤미, 이종현, 이미화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연극 올드보이

27일 토요일 오후 4:00, 8:00, 28일 일요일 오후 3: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생동감 넘치는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연극 '올드보이'.

· 작/최치언 · 연출/김관

· 출연/김정균, 추상록, 최경원, 리민 외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아마데우스(1588-9088)

연극 아트

27일 토요일 오후 4:00, 7:30 28일 일요일 오후 3:00, 7:00 MBC 아트홀

단단하게만 여겨지는 남자들의 우정과 그 실상이 그림 하나를 둘러싸고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연극 '아트'.

· 출연/송승환, 김일우, 정원중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문의 제이엔미디어홀딩스 (02-3444-2610)

안녕하십니까! 수녀님?

27일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28일 일요일 오후 2:00, 4:30, 7:00 동아대학교 석당홀

무인도에서 만난 수녀와 병사를 통해 인간의 본능과 종교 사이의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영화감독 김상진이 연출을 맡았다.

· 출연/강성진, 송민지, 서경석, 조민아, 박상면, 이현경(교체출연)



입장료 R석 45,000원 · S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아마데우스(1588-9088)

뮤지컬 알타보이즈

6월 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4일 일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뉴욕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러온 자칭 팝의 전도사 5인조 크리스찬 보이 밴드의 요절복통 뮤지컬.

· 출연/김태우, 송용진, 최성원, 이철주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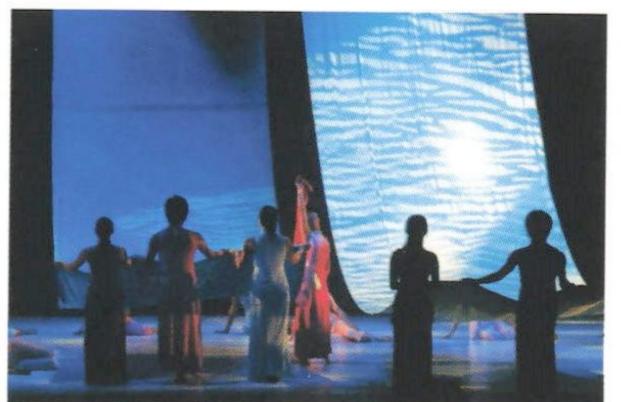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아마데우스(1588-9088)

무용

2006 부산 동인 춤마당

12일-13일 금-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0주년을 맞아 광주, 대구지역 3개 춤패가 함께 무대에 서는 부산 동인 춤마당.

■ 12일 출연단체

춤·화두 연구회 '空', 현대무용단 주-□ '꿈-세번째 이야기', 발레그룹 아다지오 '삶의 찬가', 다움무용단 '아우라지 물길따라'

■ 13일 출연단체

광주현대무용단 '관계', 로고현대무용단 '잠 못이루는 사람들', 부산창작무용연구회 '인연', 동아발레연구회 '채플린의 로맨스', 춤패 배김새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조혜진(010-9354-7397)

부산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공연

새벽별

14일-15일 일-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아 이윤자, 민병수, 박은화, 주수광, 정귀인, 강미리 등 무용학과 교수 6인이 마련한 창작춤판.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대학교 무용과(510-1740)

제 20회 부산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창작무용발표회

21일 일요일 오후 4:00
시민회관 대극장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선보이는 청소년 무용발표회.

참가학교 및 작품

학산여고 '태평무', 브니엘예고 '봄-태양의 길', 부산예고 '나는 어떤 것인가', 브니엘예중 'Festive Mood', 전효진 청소년발레단 '에피소드', 부산예고 '라 바야데어'

입장료 일반 10,000원 청소년 7,000원

문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2006 윤여숙의 전통춤

31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3대째 우리춤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윤여숙의 전통춤판.

궁중정재와 부산 지역 전통춤을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종묘제례

때 추던 춤 '일무(佾舞)'를 부산에서 처음 시연한다.

프로그램

춘앵무, 궁중검무, 일무, 동래학춤, 강태홍류 산조춤 등

· 특별출연/정재연구회, 춤두레 무용단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윤여숙(011-865-6873)

영 화

샘 페킨파 특별전

4일(목)-21일(일) 오후 4:30, 7:00(월요일 휴관, 목요일 오후 7:00 독립영화상영) 시네마테크 부산

대평원, 와일드 번치, 깃어웨이, 철십자 훈장 등 '폭력의 피카소'라 불린, 폭력미학의 대명사 샘 페킨파 감독의 대표작 11편이 소개되는 시네마테크 부산 특별전.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랑데부 드 부산 2006

프랑스 영화제 1999-2005

17일-21일 수-일요일 오후 2:00, 4:30, 7:00 경성대학교 소극장

룩앳미, 사랑은 타이밍, 토탈 웨스턴, 인게이지먼트, 인력자원부 등 프랑스의 최신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아 동 극

창작 가족인형극 아기똥풀

3일-4일 수-목요일 오후 4:00, 5일 금요일 오후 1:00, 3:00
SH공간소극장

현대 가정에서 점차 잃어가고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창작 인형극으로, 반딧불과 소독차, 옛장수, 리어카 등 우리의 정겨운 옛모습을 통해 재미를 더해준다.

· 출연/도희경, 이재경, 박성찬, 김정환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SH공간소극장(621-8518)

스폰지밥과 니안다의 모험

5일-6일 금-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다양한 캐릭터를 배우들이 직접 쓰고 연기하는 캐릭터 뮤지컬.

입장료 현매 10,000원 · 할인 8,000원

문의 극단 대추(802-0530)

상설극장 팡팡 동화나라

가족뮤지컬 해님 달님

19일 금요일 오전 10:20, 11: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된 전래동화 '해님 달님'을 각색한 어린이 뮤지컬.

입장료 균일 1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인형극단 까치(645-2110)

콘 서 트

장윤정 어버이날孝 디너쇼

8일 월요일 오후 2:00, 8:00(2시간 전 입장)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입장료 VIP 150,000원 · R석 1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엠스톤엔터테인먼트(627-3232)

홍경민 부산콘서트

13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라이브플러스(02-522-9933)

윤도현밴드 2006 전국 투어

13일 토요일 오후 7:30 BEXCO

입장료 S석 66,000원 · A석 5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S석 60,000원 · A석 50,000원)
문의 인터스테이지(1588-8477)

이수영, 빅마마, 바이브, 넥스트와 함께하는 로얄 필하모닉 콘서트

27일 토요일 오후 7:30 BEXCO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55,000원
문의 Y-MIX엔터테인먼트(757-9876)

행 사

2006 부산국제모터쇼

4월 28일(금)-5월 7일(일)
BEXCO

입장료 일반 6,000원 · 청소년 3,000원
문의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3411)

제 41주년 동래전통민속 예술축제

5일 금요일 오전 10:00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놀이마당

입장료 무료
문의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555-0092)

제 49회 시울림 시낭송회 정호승 시인의 시세계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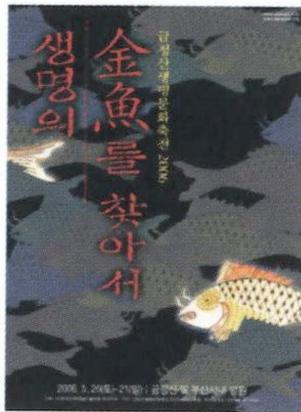
10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대담/조성래 · 음악찬조/구해인(해금)
· 회원시 낭송/김순자, 김예강, 김인권, 이동호, 이민화, 황길엽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500-7214)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2006 생명의 金魚를 찾아서

20일(토)-21일(일)
금정산 및 부산시내 일원



자연과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2006. 마을굿과 환경미술제, 생명춤 한마당 등 금정산 산성마을에서 펼쳐지는 '생명의 금어를 찾아서'를 비롯 금정산 야간산행, 산상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문의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지회
(807-0490)

전 시

부산박물관 문화재 그리기대회 수상작 전시회

4월 8일(토)-5월 7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부산박물관(624-6341~4)

N.C 갤러리, 갤러리 화인 이전 개관전 아프리카 미술의 매혹과 신비展

4월 12일(수)-5월 11일(목)

문의 N.C 갤러리(747-8550)
갤러리 화인(741-5867)

도큐멘타 부산:자료로 보는 부산미술2

5월 2일(화)-6월 25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부산의 미술가들3

5월 2일(화)-6월 25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소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랑데부 드 부산 2006

설경철 그림전

5월 6일(토)-5월 31일(수)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미술스튜디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설경철 그림전.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2006 부산회화제 기념

수채화 작품전

5월 8일(월)-5월 21일(일)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영화와 미술로 본 부산의 공간

5월 9일(화)-6월 25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랑데부 드 부산 2006

비디오 프르누아

5월 9일(화)-5월 22일(월)
경성대학교 제 1미술관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제 2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사진공모전 입상전

5월 16일(화)-5월 20일(토)
시민회관 1층 전시실

문의 부산사진작가협회(631-4111)

Recommended Performance in May

Mozart 250 II /Shostakovich 100 with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Jupiter and Lyrics for the Death'

4th(Thu)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is tim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will present us 'Jupiter' well known for the last Symphony of Mozart and 'Lyrics of the death' the work of Shostakovich who

was familiar with the unique sensibility and passion of Russian music.

Program

W.A.Mozart/Symphony No.41 C Major 'Jupiter' K.551

D.Shostakovich/Symphony No.14 in g minor 'Lyrics for the death'

· Con/Alexander Anissimov

· Solo/Irina Krikunova, Tigran Martirosian

Ticket: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More Information:607-6101, 607-6070

2006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Non-Verbal with Busan!

5th(Fri)-15th(Mon)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itizen Hall,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etc.

Germany, Russia, USA, Brazil, Japan, China and Korea, 17 performance groups from 7 countries will take part in this third festival since 2004. It has introduced another world made up of sound and movement, Non-verbal performance.

Ticket:Adult 15,000Won · Students 10,000Won

(Opening · Closing Adult 25,000Won · Students 15,000Won)

More Information:627-0443~4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420th Subscription Concert Welcome to the World of Opera Aria

11th(Thu)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 chief conductor, Alexander Anissimov and Irina Krikunova known for outstanding soprano in Russia meet in this concert. They are inviting us to a variety of opera arias.

Program

G.Verdi/Overture to 'I Vespri siciliani', Prelude to 'La Traviata'

G.Verdi/'Elvira's Aria(Ernani! Ernani, involami)' from 'Ernani'

W.A.Mozart/Overture to 'Don Giovanni' etc.

· Con/Alexander Anissimov

Ticket: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More Information:607-6101, 607-6070

the 11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PSB, 'The Classic-Sympathy' Co-played by Busan Phil. and Changwon Phil.

17th(Wed)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o celebrate the PSB's anniversary, the two representative orchestras in Busan and Kyungnam provinc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hangwon Philharmonic Orchestra and other famous musicians are presenting us music agreeable to the moment.

Program

D.Shostakovich/Festival Overture in A major op96

Kim Heejo/Gayakeum concerto 'Sanjo for orchestral music'

Chaikovskii/1812 Overture etc.

· Con/Oh Chungkeun(Busan Symphony Orchestra conductor)

Jang Yunsung(Chanwon Phil. conductor)

· Co-play/Park Jungwon(Soprano, the prof. of Hanyang Univ.),

Busan Gayakeum Players(art director/Kim Namsoon)

Ticket:R 70,000Won · S 50,000Won · A 30,000Won

More Information:1577-7600, www.psb.co.kr

Mozart 250 III with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A Night at Mozart Music'

26th(Fri)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is is the chance of tasting of unfamiliar Mozart music for Busan fans. Busan Phil. chose the works which are barely performed in Busan like a short piece of orchestral music, Mozart 1st Symphony and 39th Symphony, etc.

Program

W.A.Mozart/Five Contredanse K.109 , No.1, No.3

W.A.Mozart/Piano Concerto No.10 in Eb minor K.365 (316a)

W.A.Mozart/Symphony No.1 in Eb Major K.16 etc.

· Con/Yun Sang Un · Piano/Kim Hyung Gyu, Choi Yang Ok

Ticket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More Information:607-6101, 607-6070



A Journey to Opera with Gum Nan-se, 'Carmen' Gala

27th(Sat) 5:00, 8:0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is performance has had a record sold out every times, every seats in Sejong Center in Seoul since 1996. It is more interesting with the conductor Gum's attractive presentations.

· Play/Busan Symphony Orchestra

Ticket:VIP 100,000Won · R 70,000Won · S 50,000Won

A 30,000Won · B 20,000Won · students 10,000Won

More Information:809-8445

고음악연주 (Authentic Music, 古音樂演奏)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흔히 정격연주(定格演奏)라고 일컬어지는 고음악연주, 유럽 음악가들이 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부터였다. '18세기 오케스트라'를 비롯해서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에스페리옹 21', '콜레기움 보칼레', '에우로파 갈란테', '암스텔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등 클래식 팬들을 설레게 하는 앙상블은 대체로 고음악연주를 표방하고 있다. 분명, 이것은 우리들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연주 트렌드의 변혁이라고 정의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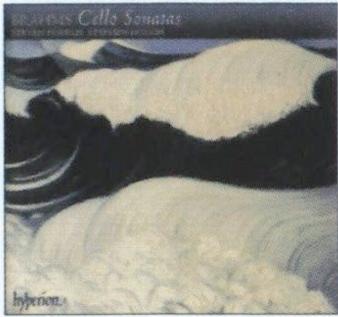
음악은 연주라는 매개에 의해서 비로소 표현되는 예술이다. 때문에 음악은 '재현 예술'이라고 정의된다. 작곡가에 의해서 창조된 음악 작품은 연주자에 의해 해석되고 연주된다. 따라서 음악은 연주의 예술이며 재현의 예술이고, 해석의 예술인 셈이다. 동일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연주자가 결정하는 프레이징(分節法)이나 템포, 감정, 강약 등의 연주 해석에 따라서 재현의 내용은 현저하게 달라지고, 악기의 종류나 연주법에 따라서도 연주 결과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이 곧 음악예술만이 갖는 독특한 매력이다. 만일, 음악 작품을 기계적인 틀에 넣어 한결같이 연주했다면 음악은 그 고유한 영역을 벌써 오래 전에 잃고 말았을 것이다.

바로크 시대에 대부분의 악기들은 이미 현재의 기능에 육박할 만큼 개량이 큰 진전을 보여 왔지만, 그것은 현악기에 거의 국한된 것이었고 관악기, 타악기, 건반 악기 등은 그 후로도 계속 개량과 발명이 거듭되어 19세기 중엽에 비로소 거의 마무리 되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작품들은 현재와 같은 악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고음악연주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났다. 17세기의 음악은 17세기의 악기로, 18세기의 음악은 18세기의 악기로 연주한다는 것이 고음악연주의 이상인 것이다.

예술 작품이 한 시대의 미학적 상황이나 사회상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연주 해석도 여기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고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때문에 그들은 옛 악기들을 복원해서 사용하고 있고, 원전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옛 연주법을 재현시킴으로써 작품의 오리지널리티 복원에 충실을 다하고 있다.

고음악연주의 효과는 놀라울만큼 신선한 충격으로 감상자에게 다가온다. 고음악연주의 출현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만큼 현대의 연주 내용이 몰 개성화 되어 왔던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새로운 스타일이 레코드를 통해서 등장하자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게 되었고, 새로운 고음악 그룹들을 잇달아 탄생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고음악연주의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주로 실내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이 스타일은 건반 악기, 성악, 타악기 등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티븐 이설리스(첼로), 스티븐 허프(피아노)-브람스:첼로 소나타 1번&2번]



낭만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스티븐 허프

열정과 대단한 탐구정신의 소유자 스티븐 이설리스

오늘날 남아있는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작품 38과 작품 99가 수록되어 있는 음반으로서 첼로와 피아노의 거장 스티븐 이설리스와 스티븐 허프가 의심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명실 공히 낭만파 시대 첼로 소나타의 대표적인 걸작으로서 브람스 특유의 우수에 찬 서정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으로 중후하고 입체적인 느낌을 첼로의 선율에 그대로 담아, 모든 평가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은 앨범이다. 스티븐 허프의 연주는 극에 달한 듯 듣는 이들을 빠져들게 하고 있으며, 특히 소나타 2번의 연주에 있어서는 역대, 가장 정열적인 연주를 보여주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각종 매체에서의 평가가 이 앨범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 올해의 TOP 10 레코드/ 선데이 타임스
- 이달의 음반/ BBC 뮤직 매거진
- 이주의 음반/ BBC 라디오 3CD 리뷰
- 올해의 필청 음반/ BBC 라디오 3CD 리뷰
-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 카를로스 클라이버(지휘)-베토벤:교향곡 7번]



이 연주를 듣지 못한 당신은 불행하다!

특히 1악장과 4악장의 거친 질풍노도와도 같은 연주는 다른 음반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질주감을 느끼게 해주며, 각 악기 소리의 강약과 타이밍은 마치 그림으로 그리는 듯한 실루엣으로 듣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다. 천재 클라이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각인시켜준 희대의 대지휘자의 전설적인 연주이다.

더군다나 SACD의 음질로 발매되어 라이브 실황의 열기와 생생한 사운드가 마치 스피커를 타고 덩벼들 듯 전해져온다. 연주가 끝나고 일순간 침묵후 터져 나오는 합성과 갈채는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DVD 2006년 베니스 페니체 오페라 극장 신년음악회]



거장 쿠르트 마주어와 유럽오페라계의 세 젊은 기대주가 펼치는 화려한 무대

2003년 12월 베니스의 페니체 오페라극장은 불사조라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잿더미 위에서 다시금 부활하였다. 재개관 이후 매년 초하루 이 화려한 극장에서 펼쳐지는 신년음악회는 빈 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클래식 음악계의 성대한 음악축제의 한 마당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영상물은 2006년의 신년음악회를 수록한 것이다.

빈 필의 신년음악회가 그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왈츠들로 장식되는 것처럼, 페니체 극장의 신년음악회는 이탈리아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국의 오페라들이 중심이 된다. 본 공연에서는 베르디, 푸치니, 그리고 도니제티의 유명 아리아 및 합창곡들과 더불어 올해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모차르트의 오페라 단편들을 무대에 올렸다.

다시금 건강을 회복한 거장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봉을 잡았고, 1996년 파바로티 콩쿠르 우승자인 소프라노 피오렌차 체돌린스, 실력파 바리톤 로베르토 스칸두치, 그리고 유럽 오페라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몰타 출신의 신예 테너 조셉 칼레야가 참여하였다.

■ 비바체클래식 제공

[시네마 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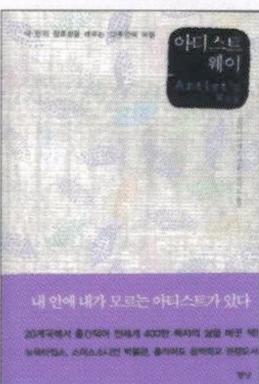
김형술 지음 | 천년의시작 | 276p | 10,000원



〈의자와 이야기하는 남자〉의 김형술 시인이 영화와 시의 만남을 말한다. 영화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예술 장르와 문화와 현생인류의 정신문화와 기술문명까지도 총 집약되는 분야이다. 그리고 시는 모든 문화예술분야의 근본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최초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단면과 복잡한 지층을 들여다본다. 김형술 시인은 더 깊고 더 넓게 영화 내면으로 들어가 있다. 시는 영혼과 가장 맞닿아 있는 장르이며, 영화는 이 세상을 비춰 보여주는 거울이다. 저자는 말한다. “내가 영화관과 영화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순례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영화가 세상을 되비추는 대단히 성능이 좋은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때로 나는 이 거울들에게 되묻곤 한다. 넌 왜 문학의 관심과 시선이 미처 가닿지 못하는 곳에 언제나 먼저 도착해 있냐고.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지점은 어디쯤이고 나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또 보고자 하느냐고. 영화는 여전히 넓고 깊은 시각을 감추고 있다. 이 부드러운 텍스트는 힘이 세다.” 시인의 안내를 받아 영화가 시 같고 시가 영화 같은, 시와 영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걸어보자.

[아티스트 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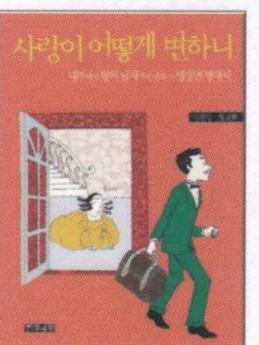
줄리아 카메론 지음 | 경당 | 359p | 12,000원



마틴 스콜세지의 아내이자 영화감독인 저자가 쓴 창조성 프로그램 교재. 미국을 비롯하여 20여 개국에서 일제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이 책은 1997년에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된 적이 있다. 이번에는 10주년 기념출판 서문과 부록을 추가하여 새로 나왔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창조성(아티스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번잡한 일상, 주변의 시선, 두려움 등으로 우리 안에 창조성을 가두고 있다고 보는 저자는 창조성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하고 신선한 방법을 제시한다. 창조성 회복의 도구로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모닝 페이지 쓰기’와 ‘아티스트 데이트’. ‘모닝 페이지’는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3쪽 분량의 글을 쓰는 것으로, 내면의 소리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아티스트 데이트’는 일을 중단하고 자신을 어린 아이와 같이 내버려두는 것이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해변, 미술관, 시골길 등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음미해보는 것이다. 단순히 창조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고, 자신을 긍정하고, 진정한 나를 만나도록 이끄는 독특한 책이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보아·장상용 지음 | 열대림 | 302p | 11,000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거야”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칼렛.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거예요.” - 러브 스토리, 제니퍼. “자들하고 친구나?” - 웰컴 투 동막골. 오래 기억에 남는 영화대사들이다. 관객에게 짙은 감동을 주는 영화는, 영화 팬들이 영화 속에서 순간적으로 흘러 지나간 단 몇 초, 단 몇 마디의 말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마법을 거는 것 같다. 영화를 좋아하는 이보아, 장상용 두 사람의 저자는 관객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보석 같은 영화 30편을 엄선해서 사랑과 이별, 욕망, 삶의 방식, 복수와 죽음, 사랑의 기쁨, 다섯 개 분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스크린 밖으로 뛰쳐나와 관객의 가슴에 새겨진 영화대사를 소개하면서, 멋진 장면과 그 대사를 명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함께 설명한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유명한 명대사를 확인하는 즐거움,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보물 같은 명대사를 발견하는 재미는 물론이고, 지적이고 다양한 독서경험을 제공하는 책이다.

■ 박현주 / 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한낮에 즐기는 부산문화회관 브런치 공연

-4월 부산시립극단 십이야, 5월 부산시립합창단 '7080콘서트 그 두번째 이야기...'-



4월 20일 11:00
브런치 공연으로
선보인 부산시립
극단 '십이야'.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 부산 문화회관에서 4월부터 브런치 공연을 기획,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여주고 있다.

4월 20일과 21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부산시립극단의 '십이야' 공연을 시작으로 브런치 공연의 막을 올린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5월에는 25일 부산문화회관 특별 기획으로 열리는

부산시립합창단 '7080 콘서트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오전 11:00 브런치 공연으로 기획, 저녁 공연 시간에 공연장을 찾기 힘든 청중들에게 추억의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7080 콘서트 그 두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등장한 7080 메들리를 합창음악으로 편곡, 지난해 큰 사랑을 받은 부산시립합창단의 연주회로 관심이 높다.

브런치(Brunch)란 아침식사를 뜻하는 브렉퍼스트(Breakfast)와 런치(Lunch)를 합친 합성어로 아침과 점심의 중간에 즐기던 음식 메뉴에서 시작, 요즘은 공연계에도 브런치 공연 열풍이 불고 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5월 당첨자

▶ 5월 12일(금) 낙동강 하구연 생태체험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노은석(사상구 엄궁동)
김길진(연제구 연산9동)
장귀엽(동래구 명장1동)
최연화(북구 화명동)
김민수(서구 부민동)
김주리(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김완길(동래구 온천동)
김승은(사하구 하단동)
유경빈(부산진구 가야2동)
최정현(부산진구 개금동)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박정희(연제구 거제1동)
천진미(남구 용호동)
이복자(남구 용호1동)
김민주(사상구 주례2동)
류주협(해운대구 우2동)
류종우(남구 대연3동)
정영호(금정구 서2동)
손화영(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정말용(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신동숙(남구 대연5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문제

- 오는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독일, 미국 등 7개국 17개 작품이 참가하는 국제연극제.
- 혼합했을 때 무채색이 되는 두 색, 또는 그 두 색의 관계.
- 자작나무 껍데기를 여러 겹으로 겹쳐서 누빈 위에 하늘을 나는 천마를 그린 도장니(말 양쪽 배에 가리는 가리개)와 금관 등 1만 1,500여점의 유물이 발굴된 경주의 고분.
- 구약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벽돌로 하늘높이 피라미드형으로 쌓아올렸다는 탑.
-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로 '여자의 마음' '사모하는 이름' 등의 아리아가 유명.
- 국보 29호로 지정된 성덕대왕신종의 또다른 이름.
-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을 발표한 소설가.
- 쪽 찢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여자의 장신구.
- 회의에서 토의되는 안건을 회의의 구성원 중 다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일.

- 소설 '나목'으로 등단, 대표작으로 '그 가을의 사흘동안' '엄마의 말뚝' '꿈꾸는 인큐베이터' 등이 있다.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끝에 낙이 옴을 이르는 말.
- 화가 고갱이 말년을 보낸 곳으로 유명한 남태평양 중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속하는 소시에테 제도의 주도(主島).
- 원자폭탄, 원자로 등 원자력의 이용에 필요한 중요한 원료로, 천연으로 존재하는 원소 중 가장 무거운 방사성 원소의 하나.
- 매년 5월 프랑스 휴양도시 칸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세로문제

- 지난 20일 헌정사상 여성 최초로 임명된 한명숙 ○○○○.
- 중국 길림성 동부에 있는 자치주. 조선말기부터 한국인이 이주하여 개척한 곳으로 이전에는 북간도로 불리었다.
- 취리히와 바젤에 이은 스위스 제 3의 도시로, 각종 국제기관이 모여 있어 국제회의가 자주 열린다.
- 불국사 대웅전 앞 서쪽의 석가탑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는 국보 제 20호로 지정된 석탑.
-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시스티나성당 천장에 그린 세계 최대의 벽화.
-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더불어 베네룩스 3국 중 하나. 수도는 브뤼셀.
- 경기자가 정해진 자리에서 공을 채(클럽)로 쳐서 잔디밭에 배치된 18개의 구멍(홀)에 차례로 넣어가는 구기.
- 토정 이지함이 지었다는 책. 그 해의 신수를 보는데 쓴다.
- 자동차경주 선수.
-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유명한 강원도 강릉시의 바닷가.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 머루와 함께 대표적인 야생과일의 하나.
- 해안일대가 아름다워 관광지로 유명한 전라남도의 섬. 통일신라시대 때 장보고가 이곳을 중심으로 청해진을 설치하기도 했다.
- 1955년 동아일보에서 시작, 2000년 문화일보를 끝으로 무려 1만 4139회를 연재한 김성환 화백의 세계 최장기 신문연재만화의 주인공.
-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가톨릭공화국.
- 실이나 끈 따위를 사려놓은 문치를 세는 단위.
- 브라질의 소설가 바스콘셀로스의 대표작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여섯살 주인공.

지난호 정답

이	파	라	오	코	코	샤	넬
무	서	리	로	또	스		
지			라		모	파	상
치	마	로	사	야	누	스	춘
	애		설	경	구		곡
원	불	교	극		장	한	나
근		토	지	가			이 호
법	명		피	겨	스	케	이
	왕	희	지		펠		게
해	성		기		송	도	일 기

■ 큰집 식사권

- 이동희(수영구 망미2동)
- 이선호(부산진구 전포3동)
- 송경숙(부산진구 연지동)
- 김성민(동래구 수안동)
- 이경화(해운대구 우1동)

■ 산마루곰터(구 돈방불패)

- 이동현(부산진구 연지동)
- 송두열(중구 부평동4가)
- 남주문(중구 중앙동3가)
- 김옥선(사하구 감천1동)
- 장민규(연제구 거제3동)

■ 가마골소극장 초대권

- 이민정(사하구 당리동)
- 하금자(수영구 망미1동)
- 문정이(사하구 괴정3동)
- 한재진(연제구 연산5동)
- 장은숙(북구 구포동)

■ 동보서적 도서교환권

- 이은득(수영구 민락동)
- 김상남(중구 중앙동2가)
- 박신향(해운대구 반여2동)
- 홍필호(동구 초량동)
- 백학정(수영구 수영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산마루곰터

- 찜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5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4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 여행

가야문화 체험과 딸기 따기 그 뒷이야기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과 (주)파란여행이 200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부산시립 예술단 정기회원 테마 여행 4월 일정이 지난 4월 7일 김해박물관과 수로왕릉, 수로왕비릉에서 진행되었다.

갑갑한 도시 생활을 떠나 일탈을 꿈꾸는 테마여행 응모자들 중 당첨의 행운을 안은 사람은 20명. 가까운 김해이지만 떠난다는 설렘으로 아침부터 잠을 설쳤다는 회원들은 일행과 함께 부산문화회관에 도착, 8:30 김해박물관으로 출발했다.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도착한 김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고고학 박물관인 김해박물관을 비롯 대성동 고분박물관,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등 다양한 가야문화 유산의 보고이다. 이날 테마여행에 동행한 회원들은 문화 유산해설사의 상세한 해설을 들으며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가야문화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4월 테마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딸기 따기와 떡메치기. 가야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설명이 길어져 늦게 점심을 먹어야 했던 회원들은 무척산 관광예술원에 도착, 도시에서 맛보지 못한 자연을 만끽하며 오후 체험 일정을 시작했다. 딸기 비닐하우스에 도착하자 함께 참가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딸기향이 우릴 데리러 오는 것 같다”는 탄성을 자아냈다. 싱싱한 딸기를 내 손으로 직접 따 먹는 즐거움에 덩으로 떡메치기 체험을 할 수 있어 행복했던 봄날. 함께 어우러져 떡메를 치고 콩고물을 무쳐 떡을 나눠 먹던 회원들은 5월 테마 여행의 행운을 기대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일탈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응모하십시오.



▶ 6월 9일(금) 천연염색 및 우포늪 생태체험

국내 최대의 자연늪지인 우포늪 생태 및 천연염색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여행.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00 창녕 우포늪 생태학습원 도착-천연염색 체험

12:00 중식

13:00 우포늪 생태 관찰 및 설명

15:00 창녕 출발



▶ 7월 7일(금) 손두부 및 허브체험

배내골의 맑고 푸른 자연 속에서 두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향긋한 허브 화분을 만들어보는 자연체험.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00 석남사 관람

11:00 체험장 도착 및 손두부 만들기

12:30 중식

13:30 허브화분 만들기

14:30 배내골 출발



▶ 8월 11일(금) 가족과 함께 즐기는 즐거운 해양체험

기장 수산과학관 관람과 송정해수욕장에서 즐기는 신나는 해양 래프팅 체험.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09:30 기장 수산과학관 도착 및 관람

11:30 송정해수욕장 도착 및 중식

13:00 해양 래프팅 체험

15:00 송정해수욕장 출발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5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10명을 추첨, 1인 2명에게 여행 상품권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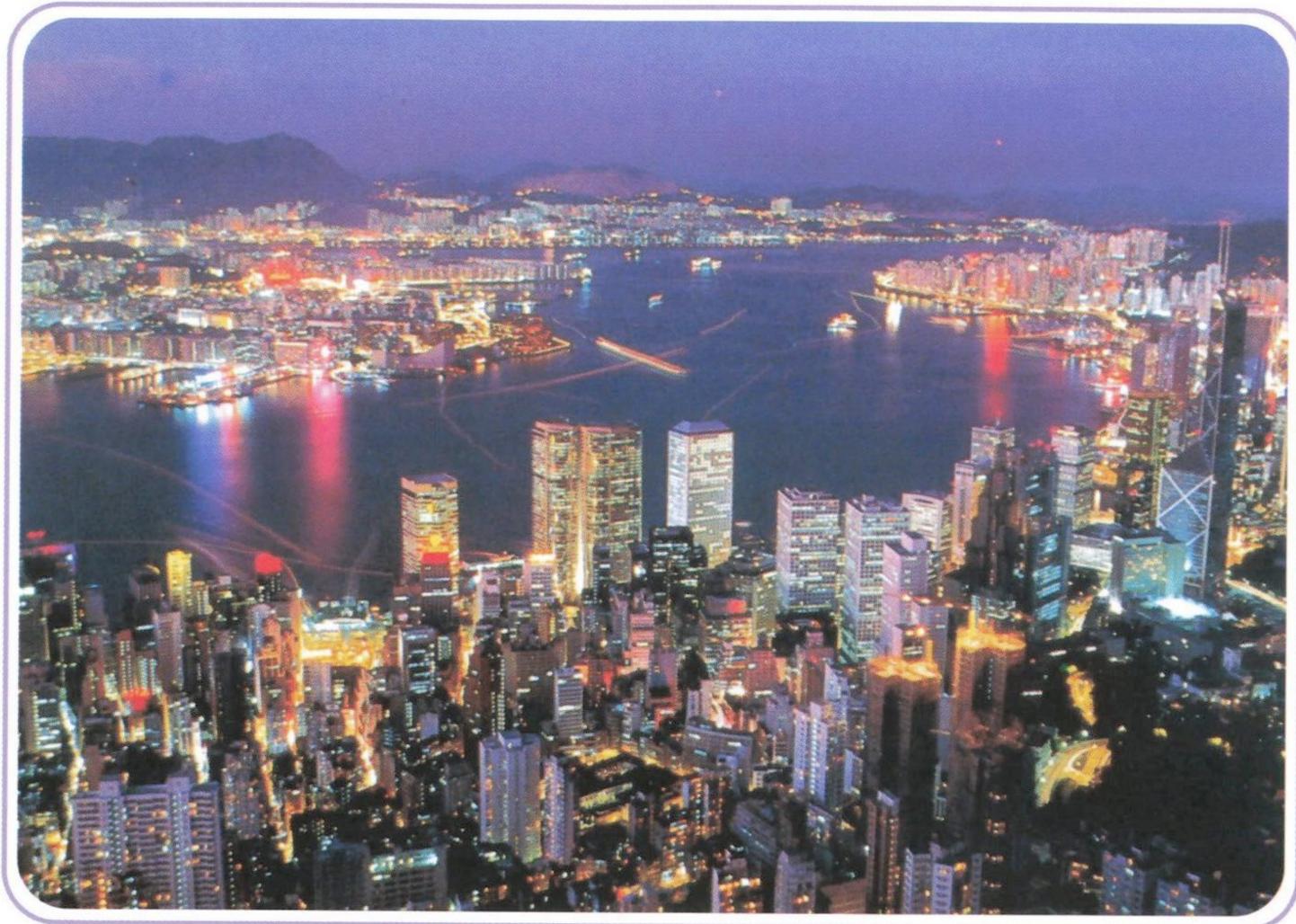
■ 발표 : 5월 25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당첨자 발표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051-607-6070), (주)과란여행(051-631-7740)



매주 월요일

부산에서 바로 떠나는 **홍콩** / **마카오** 자유여행



■ 홍콩/마카오 에어텔 5일

₩ 399,000 (홍콩 1박/마카오 2박)

₩ 419,000 (홍콩 2박/마카오 1박)

■ 홍콩/마카오 왕복항공권 ₩250,000 ~ (tax 별도)

- 포함사항 | 부산-마카오간 항공료, 4성급호텔(2인 1실), 호텔조식
※ 홍콩, 마카오 자유 & 배낭여행 책자 제공
- 별도사항 | 부산, 마카오 공항세(TAX:₩45,000), 유류할증료 (왕복 45\$)

• 추천일정

- | | | |
|-------|---------------------------|-------------------------------------|
| 제 1 일 | 06:50 김해공항 미팅 | |
| | 08:20 김해공항 출발 | |
| | 10:55 마카오 도착 | |
| | 페리 터미널 이동 후 홍콩 이동(1시간 소요) | |
| 제 2 일 | 전 일 | 1. 홍콩 데이투어 |
| 제 3 일 | | ▷ 빅토리아파크, 리펄스베이, 오션파크, 야시장 등 시내관광 |
| 제 4 일 | | ▷ 침사추이, 몽콕야시장 등 쇼핑관광 |
| | | ▷ 홍콩 디즈니랜드 관광 |
| | | 2. 심천 데이투어 |
| | | ▷ 소수민족쇼 및 대형문화 유람지 관광 |
| | | 3. 마카오 드라마 '궁' 촬영지 데이투어 |
| | | ▷ 와인 & 그랑프리박물관, 세나도광장, 세계적인 카지노관광 등 |
| 제 5 일 | 02:55 마카오 출발 / 부산항발 | |
| | 07:10 부산 도착 | |

• 자유여행 및 항공권 문의 : 김대곤(010-7757-7346)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이 쿠폰은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5월 20일(토) - 방수미 수궁가 완창무대

지난해 APEC 기념 부산시립예술단 총제가무악극 '즐거워라 무릉도원'의 주역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난 바 있는 소리꾼 방수미의 수궁가 완창무대.

방수미는 남원 춘향제 전국 판소리 명창 대회 일반부 대상, 제 13회 KBS 서울 국악
대 경연 대회 판소리 부분 금상을 수상하고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수미의 <수궁가>는 남해성에게 배운 유성준바디이다.

· 고수/서은기(국립민속국악원 기악부 단원)



방수미

● 5월 27일(토) - 부산페스티벌 기타 앙상블 연주회

바로크에서 현대곡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기타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해온 부산페스티벌 기타앙상블 연주회.

프로그램

폴 메카트니/에스터 데이

유키 구라모토/레이스 루이스

M. 로랑/시바의 여왕

케텔비/페르시아 시장에서

줄리아니/대서곡

카탈로니아 민요/도적의 노래

타레가/알함브라궁전의 추억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베세/귀여운 꽃

벨라스케스/베사메무초

박학기/서른 즈음에 등 수곡

● 6월 24일(토) - 이태리음악연구회 연주회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듣기 쉽고 재미있는 이태리 칸초네와 이태리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무대.

프로그램

김동진/신아리랑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커티스/너는 왜 울지 않고

박판길/산노을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날지 못하리' 등 수곡

출연/소프라노 김민정, 신진범, 메조소프라노 박소년, 테너 권오중, 테너 강학운, 테너 장원상, 바리톤 최기천, 바리톤 김대성

• 입장권 :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5월 부산국제연극제와 6월 부산시립극단 소극장 연극페스티벌 일정 관계로 5월 6일, 13일, 6월 3일, 10일, 17일 토요상설 무대 공연은 쉽니다.

상식을 깨는
별난 물건 박물관
과학연구박물관

10%할인권

(1매 4인 사용가능)

대상:할인쿠폰 소지자 또는 예술단 정기회원카드 제시자
기간:6월 30일까지

해운대 스펀지 3층 TEL:051-740-4858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준높은 감상을 위한 우리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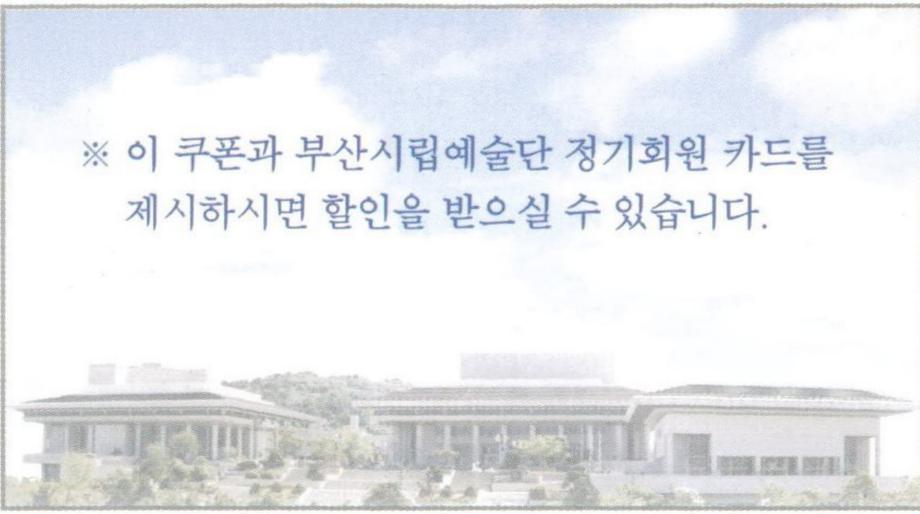
- ◇ 혼신의 힘으로 작품에 임하는 예술가의 열정과 관객들의 진지한 감상태도가 같이 만날 때 비로소 예술작품은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 ◇ 모처럼 공연장을 찾았다가 공연장 예의를 무시한 일부 관객들의 비문화적 태도로 감상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올바르게 감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 숨소리마저 죽이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의의 마음으로 감상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예술 작품을 함께 완성시켜 가는 성숙하고 수준높은 관객의 역할입니다.
- ◇ 부산문화회관은 이러한 공연장 예의를 지키며, 진정 예술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장 소중한 관객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합니다.
- ◇ 부산문화회관이 품위있고 격조높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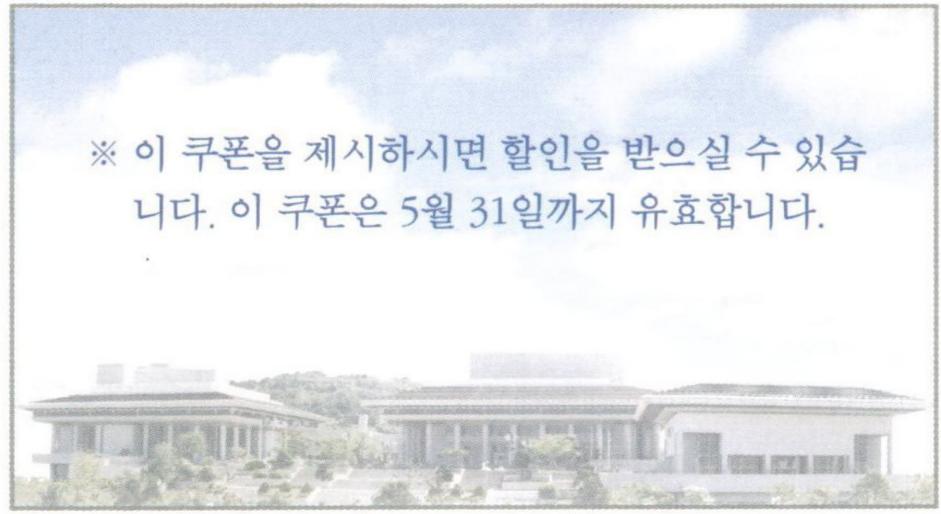
음악회에서는 언제 박수를 쳐야 할까?

- ◇ 박수를 언제 쳐야 할 지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를 기다렸다가 박수를 쳐도 늦지 않습니다.
- ◇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 악장의 수가 3~4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은 모든 악장이 끝난 후에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 ◇ 성악연주회의 경우는 한 작곡가의 곡이 모두 끝났을 때, 연주자가 3~4곡씩 묶어 부를 때는 다 들은 후 박수를 치면 됩니다.
- ◇ 오페라 공연의 경우에는 막이 내릴 때 치면 되고, 곡이 진행중에도 그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나 혹은 유명한 아리아를 열창하고 나면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단, 오케스트라의 후주가 끝난후에)
- ◇ 레퀴엠(진혼곡)은 연주가 끝나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추모의 뜻으로)
- ◇ 앵콜곡을 듣고 싶을 때는 지휘자 또는 연주자가 연주를 다 마치고 인사할 때 박수와 브라보라는 말로 요청합니다.(휘파람이나 고함소리를 내지 않는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이 쿠폰은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초대 담당자 앞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초대 담당자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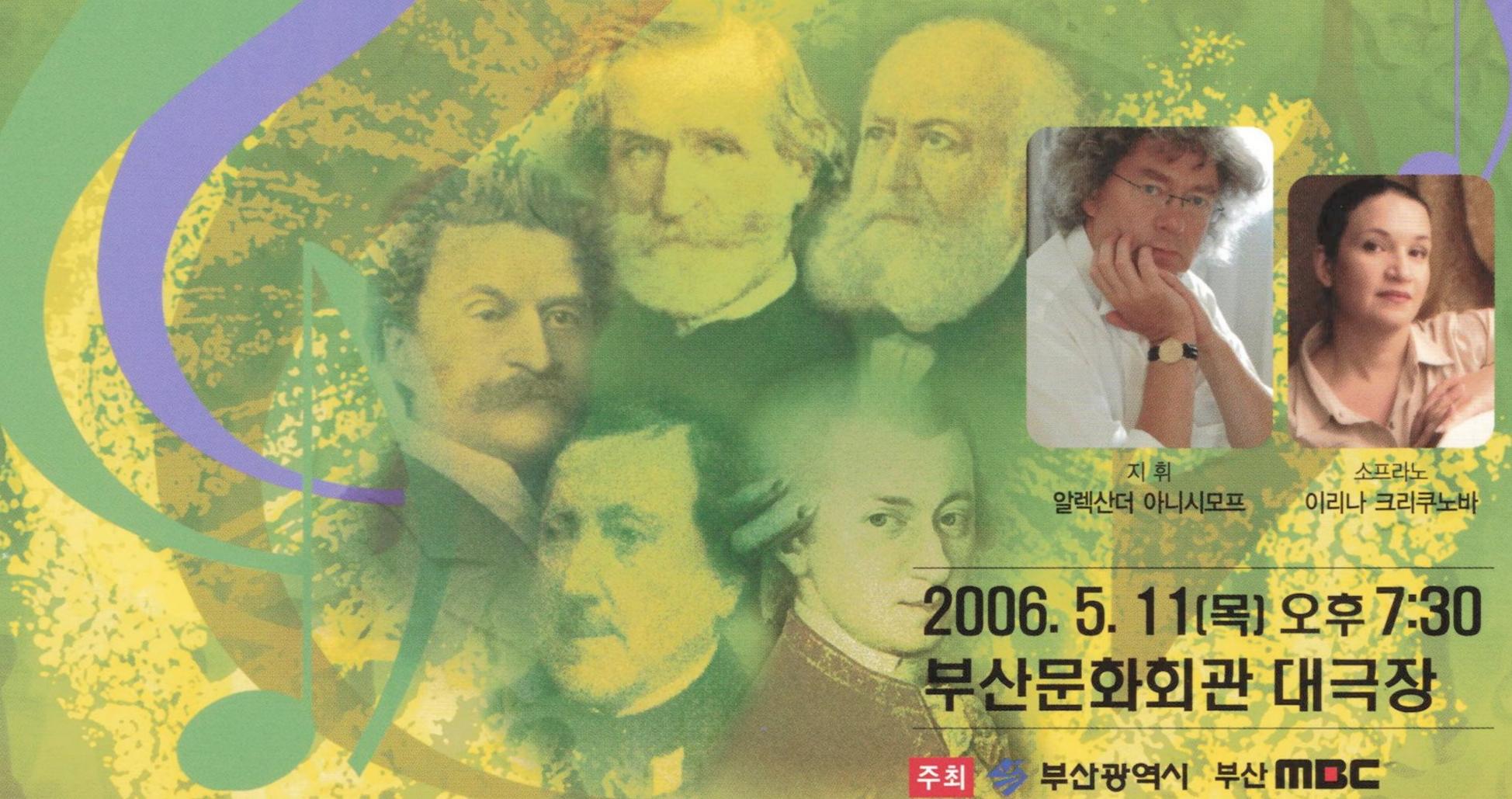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20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 MBC 창사 47주년 기념

오페라 아리아의 세계로...



지휘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소프라노
이리나 크리쿠노바

2006. 5. 11(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 MBC

협찬 LifeStylist 현대백화점 FORAD [주]포에드 | 통합광고대행사

■ 공연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www.bsulture.busan.kr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www.busanphil.com 607-6101~4

■ 입장권 /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청심꽃조경앞(대연지하철역 5번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 100M 지점) → 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365.co.kr

남포동/문우당서점(버스정류소 앞 245-3843) 남포문고(호림빌딩 1층 245-8911~3) 덕천동/대한도서(덕천교차로 332-7339)
 서면/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보서적(제일은행 옆 803-8000) 유니트클럽(까르푸 서면점 내 462-0833)
 금정/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부산대 앞 518-0686) 골든 악기사(부산예고 앞 512-4295) 대연동/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해운대/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선프라자 1층 743-0003) 하단/향학서점(동아대 입구 204-9381)

The 54th Subscription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부산시립무용단 제 54회 정기공연

물. 비늘

the surface of the **Water**

안무·구성 **홍기태**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2006.5.23(화)~24(수) 오후 7:30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

관람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협찬 ForAD (주)포에드

문의 부산문화회관 625-8130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무용단 607-6118, 6120 www.koreanfolkdance.com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인터넷 예매 ■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 부산은행 - 티켓 365 www.ticket365.co.kr

금정구: 신나라레코드 518-6686(부산대앞), 골든악기사 512-4295(부산대학교앞) 서면: 동보서적 803-8001, 영광도서 816-9500, 유니트매장 462-0833(계부포내)
남포동: 남포문구 245-8911, 문우당서점 245-3843, 남구: 민학도서 623-9404(경성대 앞), 해운대구: 해운대약국 752-0100, 비파채클레식 743-0003(산프라자 1층)
사하구: 향학서점 203-9381(동아대 허단 캠퍼스 앞) 부산은행 (부산, 경남) 200개 지점